

아주대학교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얼굴

“우리는 AURA(Ajou University Remarkable Ambassador)입니다.”

AURA는 아주대학교를 대표하는 홍보대사로 아주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 AURA로 선발되면 학교 홍보영화 및 홍보책자 모델, 각종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이벤트 진행, 캠퍼스 투어 진행(신입생 학부방문의 날, 모교 방문의 날 등), 전국 대학생 홍보대사 연합 활동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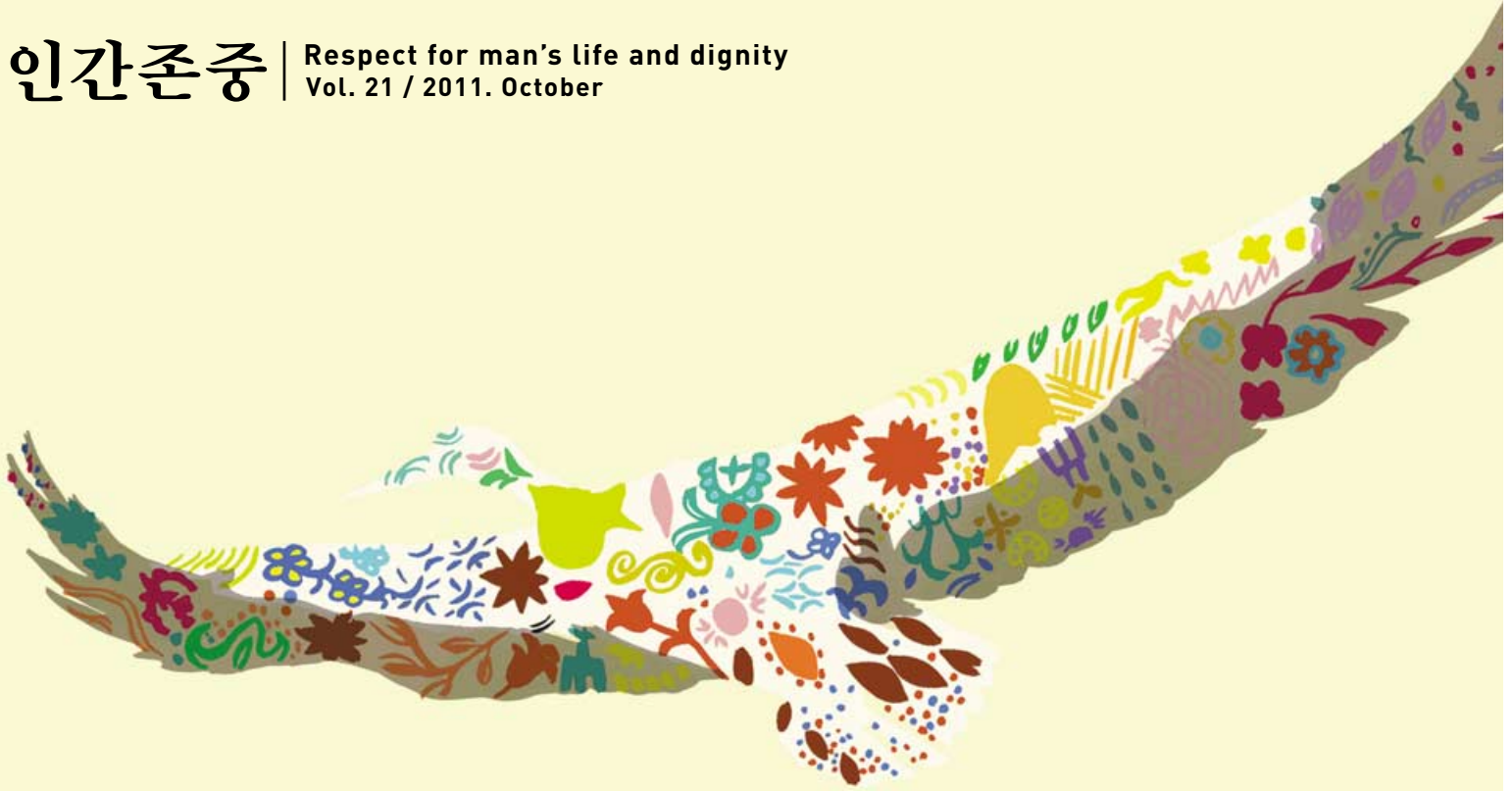
매년 초 서류 전형과 면접을 통해 선발합니다. 문의 : 홍보실 031-219-2060

왼쪽부터 박종민(환경건설교통공학부 06)/김영휘(e-biz 07)/양성해(경영학부 10)/장광희(산업정보시스템공학부 06)/조남희(경영학부 09)/박주연(전자공학부 08)/김경륜(사회과학부 10)/김우식(전자공학부 07)



D Y N A M I C T O M O R R O W

인간존중 | Respect for man's life and dignity
Vol. 21 / 2011. October



challenge

- 04 아주대학교의 무한도전
세계 100대 명문사학으로 도약하는 아주대학교의 도전
- 06 젊음의 특권, 도전!
캠퍼스에 부는 새로운 여풍!
- 08 달콤한 도전, 오디션
꿈이 있기에 이끌릴 뿐이다



"Stay Hungry. Stay Foolish.
I have always wished that for myself,
And now, I wish that for you."
Steve Jobs (1955~2011)

Special Theme

challenge

도전 挑戰! 아주대를 도발하다

도전이 있기에 성공과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도전을 해야 비로소 손에 쥌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도전 없는 안주(安住)가 생의 9할을 넘는다. 그렇기에 도전은 어쩌면 선택 받은 자들의 특권이자, 그 자체가 곧 실력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도전이 늘 성공과 승리를 담보하지 않다는 것도 알기에 도전 앞에서 뿜어내는 에너지와 열정은 자신감 이상을 넘지 않는다.

도전은 그 주인을 도발한다. 미래를 응시하며, 확률의 오만과 편견의 무례함에 정면으로 맞서는 아주인의 도전을 엿본다.



Dynamic Tomorrow 人間尊重

인간존중
Respect for man's life and dignity

2011년 10월호 (통권 21호)

발행일 : 2011년 10월 31일

발행인 : 아주대학교 총장

편집인 : 아주대학교 홍보실장

발행처 : 아주대학교 홍보실 031-219-2060

기획, 편집 및 디자인 : plus81studios 02-542-0810

사진 : Polly Studio

출력 및 인쇄 : 미디어체인 02-2277-7364

Dynamic Tomorrow는
<http://webzine.ajou.ac.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Special Theme 도전 挑戰! 아주대를 도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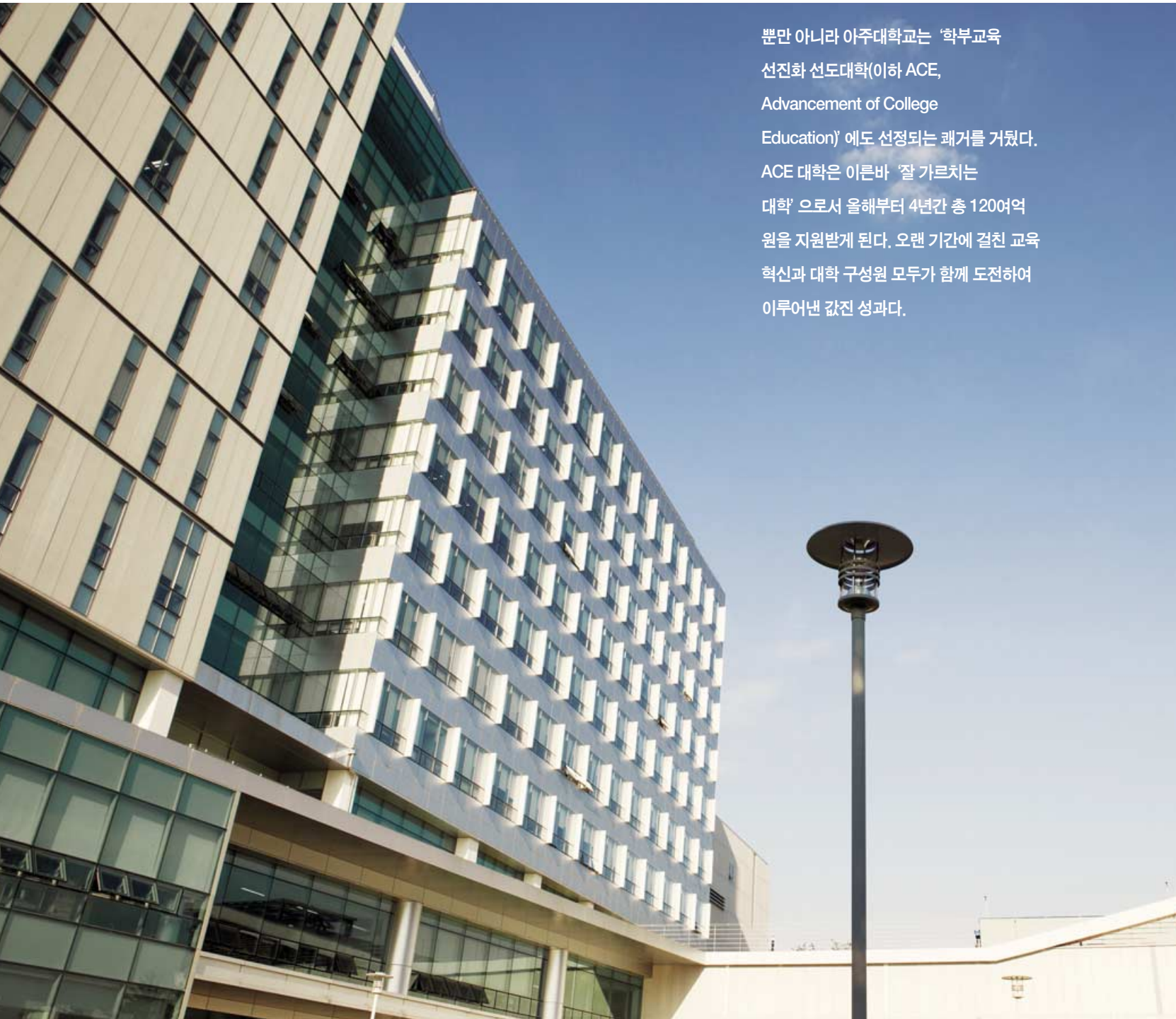
- 04 아주대학교의 무한도전
- 세계 100대 명문사학으로 도약하는 아주대학교의 도전
- 06 젊음의 특권, 도전!
- 캠퍼스에 부는 새로운 여풍!
- 08 달콤한 도전, 오디션
- 끌림이 있기에 이끌릴 뿐이다
- 10 Global Univ. Ajou 글로벌 아주, 더 높은 비상을 꿈꾸다
- 14 People in Ajou 황금이, 다시오다! 아주대학교 축구부
진취적인 생각이 기회를 부른다 김용혁 학생
- 20 Zoom in Ajou 진정한 상생의 약속, 산학협력 정보통신대학
비상 위의 비상을 준비하다 약학대학
- 24 Ajou Culture 삶의 비전을 세우는 3주간의 훈련, '신입생 집중교육'
- 26 Ajou Respect You 기회를 부르는 '긍정'의 힘 김선기 동문
- 28 Ajou News 2011학년도 상반기 아주대학교 주요 소식
아주대학교 교수 및 연구 소식
- 35 Donation News 2011학년도 상반기 아주대학교 기부 소식
아주대학교 기부 안내
2011학년도 상반기 기부자 명단

D Y N A M I C
T O M O R R O W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교육의 질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발표한 2011년도 '교육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아주대학교가 4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총 165개 대학이 지원해 80개 대학만 선정되었으며, 2011년 170여억 원을 지원받는다.

뿐만 아니라 아주대학교는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이하 ACE, 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에도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ACE 대학은 이른바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서 올해부터 4년간 총 120여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오랜 기간에 걸친 교육 혁신과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함께 도전하여 이루어낸 값진 성과다.



세계 100대 명문사학으로 도약하는 ...

아주대학교의 도전

융합학문을 실현하는 '다산(茶山)형 인재' 양성

학부교육의 선진화 목표

아주대학교는 이번 'ACE 대학' 선정을 계기로 학부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안재환 아주대 총장은 “수준 높은 학부교육을 위해 교육철학과 교육역량 그리고 중장기 발전계획의 상호연관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주대학교는 인간존중, 실사구시, 세계일가라는 대학이념을 바탕으로 '다산(茶山)형 인재'를 새로운 인재 육성 방향으로 잡았다. '다산형 인재'란 실사구시를 실천하는 융복합 창조인을 말한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처럼 영역을 넘나들며 실용적 창의력을 발휘하는 인재, 일상생활과 전문직업상의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융복합 사고 역량과 실천적 창의 역량, 의사소통 역량, 글로벌 역량 배양을 아주 인재의 4대 핵심 역량으로 정했다.

전공 넘나드는 교양교육 강화

다산형 인재상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교양교육 강화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우선, 교양과목 교육을 강화하고 안정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다산기초교육연구소'를 설립할 방침이다. 다양한 분야의 교수와 전임연구원이 이곳에서 전공 간 경계를 넘나드는 융·복합 교양교육과정을 연구하며 학부 강의를 지원

한다. 한국어, 영어 작문과 말하기 과정은 학부생 공통, 이공계 학생들은 수학·물리·화학 등 기초과학교육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전공교육은 산업수요 맞춤형 융·복합 교육과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GM코리아·삼성정보통신·LG 등과의 산학연계 교육과정이 대표적인 사례. 학생들이 급변하는 산업계 동향에 수월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융합학문 집중 양성

아주대학교는 융합학문 육성에 대학의 미래를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주비전 2023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성과지표도 '융복합교육과정 지수'로 설정했다.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아주대학교 캠퍼스에서는 학문영역 간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통합을 제시하는 융·복합 학문 재편이 한창이다. 의대, 약대, 인문대, 경영대, 자연대, 공대 등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아주대학교 캠퍼스는 학문 간 융합에 유리한 환경을 갖췄다.

금융공학은 경제학·경영학·수학·컴퓨팅 사이언스가 결합된 대표적인 융합학문이다. 올해 신설되는 소프트웨어융합학과는 기술·산업·서비스 간 융·복합을 도모해 새

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도전이다. 인문계와 자연계를 융합한 미디어학부와 문화콘텐츠 전공도 미래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김민구 기획처장은 “교육, 연구, 행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했다. 급진적인 계획보다는 한 단계씩 점진적으로 시스템을 갖추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2023년에는 우리 학교가 세계 100대 명문사학으로 발돋움할 것이다”라고 아주대학교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입영통지서 받을 생각을 하니 착잡
하기만 한 남학생들 사이에 제복 입을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두 여학생이
있다. 올 3월 아주대 최초로 여성
학군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강소희(환경건설교통공학부 2),

마빛나(사회과학부 2).

2012학년도부터 이들은 제 52기
학군사관후보생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미술을 좋아하는 소희와 야구장을 즐겨
찾던 빛나는 어쩌다 팔굽혀펴기에
매달리게 되었을까?

정리 이혜인(편집실) 사진 김성재



캠퍼스에 부는... 새로운 여풍!

아주대학교 최초 여성 학군단

보통 여대생들의 대학생활에 비하면

사뭇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여성 학군단 모집에 도전하게 된 동기는?

/

강소희 가족들의 적극적인 추천에 힘입어 지원을 했어요. 아버지와 오빠가 모두 학군단 출신이시거든요. 오빠는 올해 학군장교로 임관했고, 아버지도 장교 훈련을 다 마치셨어요. 두 분의 경험담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군인의 길을 생각하게 되었고, 저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어요.

마빛나 저는 어려서부터 운동을 좋아했어요. 육군사관학교 진학을 고심하기도 했고요. 올해 우리 학교에도 여성 학군단이 신설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는지 몰라요. 이번 선발을 계기로 저의 또 다른 꿈을 이룰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요.

학군단에 지원하기로 결심했을 때 또는 합격 후

부모님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

강소희 아직 입단 전이지만 아버지께서 “지금부터 학군단의 일원이 된 것이니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행사에도 잘 참여하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명심하며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늘 반듯하고 멋진 아버지의 모습을 저도 본받고 싶고요.

마빛나 처음에는 선발 공고를 보고 한 달 내내 고민을 했어요. 희망했던 일이기도 하지만 평범한 대학생활을 하다가 진로를 바꾸려니 망설여지더라고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제 의사를 말씀드렸더니, 오히려 반기시며 편안한 마음으로 지원해보라고 응원해주셨어요.

준비하면서 어떤 점이 제일 힘들었나요?

/

강소희 체력 측정을 준비하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신체검사와 체력검정이 있는 5월 한 달 동안 1차 합격자 친구들과 수업을 마치고 저녁마다 모여서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 연습을 했어요. 저는 달리기엔 자신이 없어서 러닝머신도 열심히 뛰었죠.

마빛나 선배님들이 배려해주는 덕분에 학군단 건물 지하에 있는 체력단련실을 이용할 수 있었어요. 월 드컵경기장에 가서 오래달리기 연습도 했고요. 준비할 때는 힘들었지만,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 보람이 더 큰 것 같아요. 요즘도 지구력을 키우기 위해 집 근처 운동장에서 하루에 다섯 바퀴씩 달리 고 있어요.

첫 훈련은 언제 받나요?

학기 중에는 어떤 훈련을 하지요?

/

강소희 · 마빛나 겨울방학에 학생중앙군사학교에서 입영훈련을 받아요. 3주간의 기초 군사훈련부터 완전군장 행군에 이르기까지, 남성 후보생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함께 훈련을 한다고 해요. 학기 중에도 마찬가지로 6시에 기상해서 체력훈련을 하고, 전공과목 공부와 더불어 군사학수업을 비롯한 교내교육을 받게 돼요.

'아주대학교 1호 여성 학군단'으로서 학우들에게, 혹은 향후 지원 계획이 있는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강소희 국방의 의무를 위해 스스로 지원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목표와 신념이 없다면, 앞으로 받게 될 군사훈련은 저에게도 견디기 힘든 과정일 거예요. 초심을 잃지 않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군단 생도가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마빛나 여성 학군단 모집에 지원 계획이 있다면 평소에 미리미리 기초체력을 길러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험뿐 아니라 선발된 이후에도 학업과 훈련을 병행하려면 체력이 중요하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꿈이 있다면 누구나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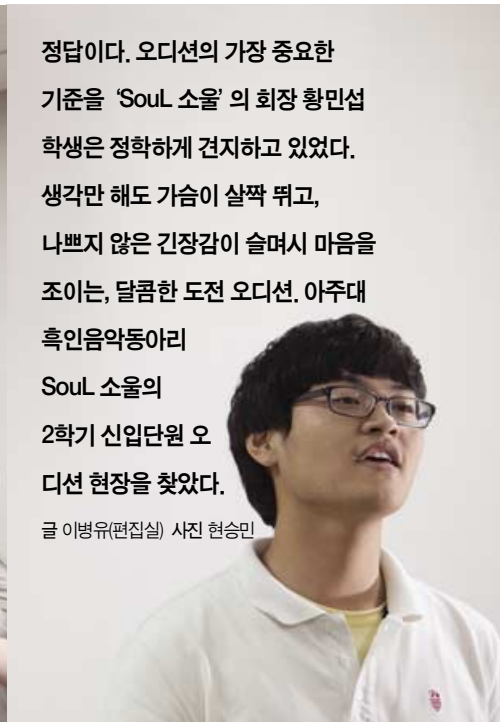
여성 학군단(ROTC)이 되려면

학군단이 설치된 대학에 재학 중인 2학년 여학생(입관일 기준 만 20~27세, 3학년 진학과 졸업학점 취득이 가능하다고 대학에서 인정한 자)은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복수전공 이수료 5년간 대학을 다녀야 하는 3학년 여학생도 지원 가능하다. 여성 학군단은 지역별 모집인원 간 자율경쟁으로 선발한다. 필기고사, 대학성적, 인성검사를 거쳐 1차에 합격한 선발인원을 대상으로 체력검정, 면접 평가결과와 신체검사를 종합해 정원의 150%선에서 2차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후 신원조회 절차를 반영해 종합득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최종합격자는 군사교육 총 175시간과 12주 입영훈련을 받는다.

홈페이지 www.armyofficer.mil.kr

“실력 보다는 같이 할 수 있는지,
목소리가 튀지는 않는지 체크합니다.
무엇보다 화합이 중요하거든요. 혹시
노래할 때 나쁜 버릇은 없는지도
살피죠. 훈련으로 극복할 수 있으면
오케이고요.”

정답이다. 오디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SouL 소울'의 회장 황민섭
학생은 정확하게 견지하고 있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살짝 뛰고,
나쁘지 않은 긴장감이 슬며시 마음을
조이는, 달콤한 도전 오디션. 아주대
흑인음악동아리
SouL 소울의
2학기 신입단원 오
디션 현장을 찾았다.
글 이병유(편집실) 사진 현승민



끝림이 있기에... 이끝릴 뿐이다

흑인음악동아리 'SouL 소울' 신입단원 오디션 현장

다산관 B108호 19:30분

오디션은 정시에 시작됐다. 당연히 반주는 없다. 가난한 대학동아리 오디션에 반주며, 조명이나 효과가 있을 리 만무하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은 욕심을 낸다.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 주세요.” 아니다. 이는 심사위원의 욕심이 아니라, 열심히 준비한 참가자를 위한 심사위원의 배려일 것이다.

심사위원은 모두 4명. SouL의 회장과 부회장, 보컬 팀장 그리고 랩퍼다. SouL의 실력은 만만치 않다. 연 1회 정기공연을 발판으로 학내 행사, 결혼식 축하, 타 학교 축제 참가 등 학교 안팎의 행사 참여로 분주하다. 몇 해 전에는 대학가요제에 출전해 4차 마지막 테스트에서 좌절하기도 했다. 만약 4차 예선을 통과했다면 전국 방송을 탈 수 있었다.

오늘 오디션의 첫째 주인공은 환경건설교통공학부 1학년 고대영 학생. 그 누구보다 떨릴 첫 참가자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주최 측의 배려는 세심하다. 스크린에 참가자가 부를 노래 가사를 띄워주고, 노래할 준비가 될 때까지 심사위원은 참가자와 시선을 맞추지 않고 기다려 준다.

첫 참가자가 준비한 노래는 '걸음이 느린 아이'.
“함께 걸으면 손닿지 못할 만큼”
이런, 첫 음을 조금 높게 잡았다. 그래도 중간에 끊으면 안 된다. 오디션의 불운물이다. 노래는 계속된다.

“빨리 오라며 그녀를 다그치고 답답한 마음에 난 앞서서 걸었는데~”

1절은 큰 실수 없이 끝냈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첫 음을 높게 잡아서 일까, 후렴부에 들어서자 참가자는 힘들어 한다. 그러나 그럴수록 노래에 점점 몰입하는 참가자. 지그시 감았던 눈 사이에 주름이 점점 진해진다.

“하루를 헤매다 돌아온 그녀는 어제보다 많이 다른 모습이죠~ 조금 더 함께 하고파 그렇게도 천천히 걷던 그녀를 난 보내야만 하죠.”

어렵사리 노래가 끝나고, 심사위원들은 채점하던 펜을 잠시 내려놓고 누구보다 힘들었을 첫 참가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이어지는 인터뷰. 첫 질문은 역시 지원 동기다.

“여러 동아리들의 공연을 보았는데 SouL의 공연만큼 제 시선을 사로잡은 공연은 없었습니다. 공연 후 SouL에 꼭 들어가고 싶어 오디션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공연은 정말 감동이었습니.”

역시 감동 없이는 행동도 없다. 고대영 참가자는 1학기에도 SouL 오디션에 참가했고 이번이 4번째 오디션 도전이다. 이제 한 학기를 보낸 11학년 새내기 4번의 오디션을 봤단다. 무엇이 그를 도전의 무대로 계속 올린 걸까?

“오디션에 합격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성취감 때문인 거 같아요. 오디션은 불을 때까지 계속해서 도전하게 만드는 묘한 끝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소하지만 꿈이 있기에 도전했고, 끝림이 있기에 이끝렸을 뿐이다. 거기에 필요 이상의 거창함은 어울리지 않다. 개인에게 있어 오디션은 사소한 계기일지 모르지만, ‘도전’이라는 씨앗은 가끔 그 물리적 축적과 화학적 변화를 거쳐 모든 사람이 괄목하는 위대한 그 무엇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오디션의 진정한 효용과 가치는 그 씨앗을 뿌리고, 또 발견하는 것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첫 음을 높이 잡았던 오디션 첫 참가자의 결과는 어찌 되었을까? 올 가을 SouL 공연무대에서 호리호리하고 눈이 선하게 생긴 남학생을 찾게 된다면…… 합격일 것이다.

“안녕하세요? 000입니다. 저는 0000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참가자가 들어 왔다. 오디션의 또 다른 이름은 ‘경쟁’ 이기에, 그리고 오디션은 열려 있기에 내순서 다음에 ‘또 다른 내가’ 자기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음을 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 한, 무대가 열려 있는 한 오디션은 계속 될 것이다.



글로벌 아주... 더 높은 비상을 꿈꾸다

아주대학교는 개교 50주년을 맞는 2023년까지 '융합학문을 선도하는 세계 수준의 대학' 으로 거듭나는 '아주비전 2023' 을 선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주대학교가 마련한 전략은 크게 네 가지다. '학문적 수월성 제고', '글로벌 캠퍼스 실현', '혁신지향적인 행정 및 지원시스템 구축', '금지과 활력의 아주 문화 확산' 이 바로 그것. 역동적인 미래를 향한 아주인의 힘찬 재도약, 그 첫 번째 발판은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캠퍼스다.



세계인이 배우러 오는 캠퍼스를 만들다

‘아주비전 2023’의 두 번째 전략인 ‘글로벌 캠퍼스 실현’은 2011년 상반기에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 핀란드 자매대학인 University of Eastern Finland와 경영학 분야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 카자흐스탄, 영국, 베트남, 러시아,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우수 대학들과 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개교 이래 교육환경의 세계화를 추구하고, 적극적인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힘쓴 결과다.

이로써 아주대학교는 세계 58개국 220개교 및 4개의 국제교류기구와 교류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됐다. 현재 자매대학의 46%는 유럽, 14%는 북미, 34%는 아시아 국가에 소재한다. 그 밖에도 아프리카, 중동, 남미까지 범위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아주대학교가 국제교류를 추진할 때 양적인 확대보다 질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아주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다양한 국제교류를 통해 해마다 최대 400명의 학생들을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파견하고, 그에 비례해 외국인 학생들을 캠퍼스로 유치한다. 이를 통해 아주대생은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지 않아도 캠퍼스에서 외국인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경험을 얻고 있다.

누구나 갈 수 있다! 문턱은 높지 않다

아주대생들은 재학 중 최대 3번까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한 번 참여한 학생은 자격조건을 잃게 되는 다른 대학과 다른 점이다. 이는 그만큼 많은 외국인 교환학생을 세계 다양한 국가로부터 유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중복 지원이 가능하므로 한 번은 선진국으로, 또 한 번은 성장 잠재력이 큰 개발도상국으로 파견을 유도하고 있다. 세계를 보는 시각에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100% 파견을 지원하며, 언어 실력뿐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소양을 다각적으로 평가한다.

아주대학교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한 복수학위제는 아주대생을 세계 명문 대학생으로 성장시키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본교에서 2년, 외국 대학에서 2년 공부하면 두 대학에서 모두 학위를 취득하는 교육과정이다. 학부 복수학위제 협약을 맺은 대학은 미국의 일리노이공대,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 텍사스 알링턴대 등이 있다. 복수학위를 밟은 졸업생들은 대부분 하버드, MIT, 예일, 코넬, 스탠퍼드 등 세계 최고 대학 석박사 과정으로 진학하거나, 다국적 기업, 국내 대기업, 연구소에 진출해 활약 중이다. 이 밖에도 특별교환학생 프로그램, 국제여름학교와 버디프로그램, 방학기간을 활용한 단과대학별 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 등 폭넓은 국제 교류의 장이 마련돼 있다.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하다

세계무대로 비상을 준비하는 아주대생들의 관제탑은 바로 아주대학

교 국제협력팀이다. 10년 이상의 전문성을 지닌 베테랑들로 구성되어 지속적이고 긴밀한 휴먼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가 가능했고, 그것이 아주대학교 국제화의 발전 동력이 되었다. “국제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는 팀원들의 사명감 또한 각별하다. 국제협력팀의 업무는 차별화 전략에 기초를 두고 있다. 선구자 정신으로 시대정신의 흐름을 읽고, 새로운 기회와 남다른 경쟁력을 창출하는 것이다.

타 대학들보다 앞서 미주 지역에서 유럽으로 눈길을 돌리고, 나아가 국제 교류의 외연을 개발도상국으로 확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정용 책임과장은 “국제화의 진정한 의미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차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나도 해보자.’라는 자신감만 있다면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말한다.



Interview



성공은 도전하는 자의 몫,
일단 저질러보자!

전용호 교수(기계공학부)
아주대 최초 복수학위제 출신 교수

모교 교수님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후배이자 제자인 학생들과 한 학기를 보내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재학 시절에 드나들던 강의실에서, 이제는 강단에 올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 보니 감회가 새롭고요. 후배들이다니 더 많은 걸 알려주고 싶고, 배워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나서도 인상 깊게 기억하는 강의, 인상 깊은 멘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내 최초로 복수학위제가 아주대에 도입될 당시 주변 분위기는 어땠는지, 또 어떤 동기로 지원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큰 동기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심과 도전이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국내에서도 충분히 취직할 수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힘들게 공부를 해야 하나? 며 저보고 괴짜라고 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아버지께서 관련 신문 기사를 오려 편지에 보내주셨어요. 공무원이신 아버지가 그 무렵 미국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현지 대학 캠퍼스와 도서관을 둘러보시고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아버지의 격려 덕분에 용기를 많이 얻었지요.

일리노이공대 생활은 어땠나요? 파견 1세대로서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요.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자 늘 분주하게 움직였지요. '주중에는 공부, 주말에는 즐기기'를 원칙으로 정했어요. 함께 파견된 아주대 동기들과도 영어로 대화하고, 현지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파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행정적인 절차와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뿐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유학을 떠나기 전부터 새로운 세계에서 혼자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생활의 질서가 흐트러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내가 선택한 길이기엔 '고생을 자처하려 간다'고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준비가 된 거예요.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통한 미국 유학생들이 학창시절의 큰 분기점이 되었을 듯합니다. 개인적인 변화 또는 성과가 있다면?

학문과 경험을 동시에 쌓을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새로운 것을 시도해 작은 성공을 일구고, 또 그 성공을 발판삼아 다른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지요. 또 아주대에서 2년을 수학한 후 나머지 2년 동안 일리노이공대 학부생활을 경험한 만큼 위스콘신대의 입학허가를 비교적 수월하게 얻었고요. 미리 현지 적응기를 거쳤기 때문에 석박사 과정은 여유롭게 보낼 수 있었어요.

글로벌 역량을 위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소양은 무엇인지요?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외국어 실력을 쌓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이 편하더라도 대화를 하다보면 그네들과 우리들 사이에 공감할 수 없는 벽이 있어요. 서로 다르게 경험한 문화적 배경 때문인데요, 진정한 글로벌 인재란 그러한 차이를 아울러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국내에서도 충분히 접할 수 있는 외국 드라마나 TV쇼 등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와는 다른 웃음 포인트에서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그때 쓰는 적절한 표현들을 접하는 것이 문화적인 감성을 체득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세계무대로 도약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해보라, 일단 저질러보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확고한 동기와 목표를 세웠다면, 실패 실패하더라도 도전해보았으면 좋겠어요. '할까 말까, 잘 될까 안 될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겉으로 보기에 실패여도 안에서 배우는 것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미지의 공간에서 맞닥뜨리는 장벽을 하나씩, 하나씩 격파해 나가는 경험을 즐겨보길 바랍니다.

2011년 8월, 아주대에 낭보가 날아왔다. 전국 55개 대학축구팀이 참가한 제12회 전국대학축구대회에서 아주대 축구부가 우승컵을 차지한 것이다. '원발의 달인'으로 불리며 11년 동안 국가대표로 활동한 하석주 감독이 모교에 부임한 지 8개월 만에 이룬 쾌거이자 아주대 축구부가 12년 만에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쏘아올린 우승포다. 글 박진희(편집실) 사진 김성재

황금기, 다시 오다!

아주대학교 축구부

감독 · 코치 · 선수가 써내려간 한 편의 드라마

사실 스포츠 경기에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최종 순위이지만 그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과정 속에 있다. 아주대 축구부의 전국대회 우승 뒤에도 승리만큼 값진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 우승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아주대 축구부가 가장 먼저 맞닥뜨린 위기는 예선전 마지막 인제대와의 경기. 비기기만 해도 자력으로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에서 후반 막판까지 1:2로 끌려가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런데 경기 종료 4초 전, 심판이 휘슬을 불려고 하던 찰나, 전현철 선수가 극적인 동점포를 쏘아 올렸다.

“솔직히 결승전에서 골을 넣은 느낌이었어요. 예선 탈락은 팀 전체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교의 기대도 저버리는 것이니까요. 그때 그 골을 넣지 못해서 예선 탈락을 했다고 생각하면 아찔하죠.”

이후 용인대와 만난 32강전도 쉽지만은 않았다. 전·후반 경기를 다 치르고도 승부가 나지 않았던 것. 결국 승부차기까지 이어진 접전 끝에 용인대를 5:4로 물리치고 우승을 향한 도전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승리의 여신이 아주대에게 손을 뻗친 듯, 이후 경기는 무리 없이 치렀지만 문제는 결승전이었다.

우승컵을 목전에 두고 홍익대와 마주쳤다. 결승까지 오른 강호들답게 여러 차례 득점 기회에도 불구하고 승부가 나지 않아 연장전까지 가게 된 것이다. 양팀 모두 승부차기를 예상했던 연장 후반 14분, 마침내 극적인 골이 터졌다. 전현철 선수가 연결해준 공을 이어받은 황철환(2학년) 선수가 홍익대 골키퍼와 단독으로 맞서 귀중한 한 골을 넣은 것. 아주대의 우승을 결정지은 짜릿한 골이었다. 황철환 선수는 그때의 기분을 이렇게 전했다.

“우선 팀의 우승에 기여를 해서 무척 기분이 좋죠. 개인적으로는 이번 대회 예선전에 경기를 많이 뛰지 못해 마음고생을 했어요. 그러던 찰나에 터뜨린 결승골이니까 '이제 좀 풀리려나보다' 생각했어요. 그야말로 '속 시원한' 골이었죠.”



아주대학교 축구부 하석주 감독





“철환이는 결승전에서
골을 넣고는 옷을 벗어버렸어요.
원래 특별한 세레머니를 하지 않았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나 봐요.”

점잖게 소감을 밝히는 황철환 선수를 바라보며 의미
심장한 웃음을 짓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일 년 선배
인 이재역(3학년) 선수. 그가 웃으며 말했다.

“철환이는 결승전에서 골을 넣고는 옷을 벗어버렸
어요. 원래 특별한 세레머니를 하지 않았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나 봐요.”

아주대 축구부에 이는 변화의 바람

새벽 6시 40분부터 시작해 1시간 가량 이어지는 아
침 운동, 다시 오후 2시부터 근처 매탄공원에서 실
시하는 훈련과 연습 경기, 그리고 저녁 8시 40분부
터 시작되는 스텝 훈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
루도 거르지 않고 아주대 축구부가 소화해내는 운동
스케줄이다. 계속되는 훈련에 지칠 법도 하지만 선
수들은 하나같이 표정이 밝다. 최근 좋은 성적을 거

둔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올해 아주대 축구부의 분
위기가 ‘밝아졌다’고 선수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팀 분위기가 밝아지니 팀워크가 좋아지는 것은 당연
지사. 그러나 자연히 성적도 좋아졌다. 올해 들어 확
실히 달라진 팀의 분위기, 그 중심에 하석주 감독이
있다.

“선수들을 처음 만나고 가장 강조한 것은 팀의 분위
기예요. 축구는 결국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라 11명
의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함께 뛰는 것이니까요. 이
번 우승 역시 선수들 개인 기량도 중요하겠지만 팀
전체가 단합된 정신으로 일궈낸 것이라 볼 수 있죠.”

하석주 감독은 선수들에게 늘 ‘시합에서 쳐도 고개
숙이지 마라’고 말한다. 선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
지 않으려는 노력이다. 선수들이 그런 감독의 의도
를 파악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어떤 스포츠든 결정적인 순간에 승패를 판가름 하는 것은 결국 정신력을 감독과 선수들 모두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석주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아주대 축구부가 겪은 또 다른 변화 중 하나는 소위 말하는 '베스트 라인업' 이 없어졌다는 사실이다. 선수 누구나 그라운드에서 열심히 뛰면 선발 명단에 들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선수들끼리도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됐고, 팀 전체의 실력도 향상됐다.

한여름의 뜨거운 땀별 아래서도 선수들이 워낙 훈련을 열심히 하니, 아주대 축구부 내에서도 '이번 우승은 우리 것' 이라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그러나 드라마틱했던 우승 과정은 단순히 운이 따랐

던 것이라 볼 수 없다. 운동 열심히 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 결국 이번 우승은 평소의 꾸준한 노력이 일궈낸 결과물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아주대 축구부는 올해의 성적에서 머물 수 없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을 호령했던 아주대 축구부의 황금기, 그때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한 두 차례 우승으로 '반짝' 잘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년 상위권에 오르는 것이 당연한 팀을 만드는 것이 아주대 축구부의 목표다. 멀리뛰기를 할 때는 자세를 최대한 많이 웅크릴수록 더 멀리 도약할 수 있다고 했던가. 상대팀마다 '아주대를 만나기 두렵다' 고 말할 정도로 아주대 축구부가 진정 '강한 팀' 으로 거듭날 날이 이제 머지않아 보인다.



Interview



아주대 축구부 3인방을 만나다

전현철, 이재역, 황철환

우선 이번 우승을 축하드려요.

어떤 변화가 올해 좋은 성적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나요.

전현철 하석주 감독님은 열심히 뛰는 선수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라운드에서 열심히 안 뛰면 경기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선수들 스스로 아니라까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이재역 올해는 선수들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졌어요. 정신적으로 더 무장이 되었다고나 할까요? 모두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분위기에요. 그래서 상대팀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주대는 원래 전반전만 잘 뛰고 후반전에 약했는데 올해는 후반전에 오히려 더 잘 뛴다' 고요.

황철환 작년에 저희 팀은 득점이 많은 대신 실점도 많았어요. 팀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실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올해 들어 실점이 많이 줄었어요. 무엇보다 감독님이 정신적으로 강한 선수, 기동력이 좋은 선수를 원하세요. 그런 감독님의 성향을 아는 선수들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존경하는 선수라던가 축구 인생에서 멘토로 삼고 싶은 인물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전현철 평소 멘토로 삼고 싶은 선수는 스페인의 다비드 비야예요. 탁월한 위치 선정 능력, 골을 반드시 넣겠다는 의지, 그리고 득점력까지 갖춘 선수죠.

이재역 저희 코치님이신 이정호 선생님을 본받고 싶어요.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한 분이세요. 프로 생활을 10년 넘게 하기가 힘든데, 코치님은 10년 넘게 한 팀에서 활동하시고 주장까지 하셨어요. 그 열정을 첫 제자인 저희들에게 쏟고 있으니 영광일 따름이죠.

황철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를 아주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외적인 부분에서 자기 관리가 철저한 면을 닮고 싶어요.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요.

전현철 개인적으로 올해는 힘든 시기였어요. 십자인대 수술로 7개월을 쉬었거든요. 그동안 정말 축구가 하고 싶었어요. 아직 몸이 100% 좋은 것은 아니라 부상을 조심하면서 남은 시합을 잘 해야죠. 팀의 목표는 당연히 U리그 우승이죠. 매 경기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역 4학년이 되는 내년까지 부상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프로 선수로 나아가는 것이 목표예요. 남은 U리그는 매 게임을 후회 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철환 개인적인 목표는 U리그 수도권광역리그에서 득점왕을 하는 것이에요. (황철환 선수는 9월 25일 현재 골 득점 10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리고 챔피언십에 나가서 다시 한 번 우승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Be Initiative, Awesome aren't easy.” 꿈을 좇아 세계를 누비는 김용혁 학생은 이 문장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자기 주도적 행동을 하면 평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며 그것은 곧 기회가 된다고. 입학할 때만 해도 ‘츨뜨기 신입생’에 불과했다는 그가 아주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수시 글로벌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을 접하고, 이를 발판 삼아 국제협력팀과 정부 NIIED(국립국제교육원),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도전하기까지, 그의 ‘Initiative’ 한 대학시절을 들여다보았다. 정리 이혜인(편집실) 사진 홍보실

진취적인 생각이 기회를 부른다

김용혁 학생(e-비즈니스학부 06)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좇다 보면 기회는 보이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 기회를 아주대학교에서 찾았으며 또 다른 기회를 찾아 이제는 미국 땅으로 무대를 옮겨봅니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비즈니스학부 06학번 김용혁입니다. 원래 정보 및 컴퓨터공학부 06학번으로 입학했습니다만 평소 빌 게이츠의 비즈니스 능력을 흠모해온 저는 컴퓨터와 경영을 종합한 e-비즈니스학부로 전과하게 되었습니다. 25살(87년생)이며 3학년입니다. 재학 중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하다보니 친구들과 비해 졸업이 늦은 편입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을 찾고, 그 꿈을 위해 투자한 시간이었기에 만족합니다. 조기졸업 제도를 이용해 현재 한 학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제화프로그램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참여한 프로그램과 활동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글로벌 비즈니스의 꿈을 갖게 된 후로 여러 곳에서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1월에 파견된 ‘아주대학교 수시 글로벌 장학 프로그램’은 수시합격자 중 상위 20%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매대학에 한 달 동안 어학연수를 보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영국의 명문 대학인 Bristol University 내에 있는 ESL Centre에서 회화 중심의 교육과정을 밟았고, 홈스테이를 통해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님 덕

에 머물며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계기가 되어 1년 뒤인 2007년에는 유럽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당시 팀을 모아 벤츠 벤을 한 대 빌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바티칸, 스위스, 오스트리아를 15일간 여행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군 전역 후 경영대 ‘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해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파견국과 관련한 연구 주제를 정하고 현지 기업 등을 방문하며 그들의 역사와 발전 방향, 기업가정신을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팀은 ‘한국과 일본의 소핑문화 차이’라는 연구 주제를 가지고 오사카의 파나소닉(Panasonic), 나고야의 도요타(Toyota)공장 등을 방문했는데, 글로벌 경영을 목표로 하는 저에게는 매우 뜻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또 2010년 1학기에는 서울, 경주여행, Welcoming Party, International Day 등을 통해 외국학생들과 친분을 쌓았던 ‘Ajou Global Ambassador(AGA)’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NIIED(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최한 ‘Cultural Mission in Saudi Arabia’에 학교 대표로 선발되어 사우디에서 7일간 연수를 받았습니다. 중동이라는 생소한 비즈니스 환경을 접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사우디 고등교육부의



입학할 때만 해도 자신이 '촌뜨기 신입생'에 불과했다고 말하는 김용혁 학생은 아주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수시 글로벌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을 접하고, 이를 발판 삼아 국제협력팀과 정부 NIIED(국립국제교육원),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도전했다.

주관으로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Riyadh)에 있는 King Saud University를 비롯한 명문 대학들을 방문해 중동에 새로이 도입된 교육시스템을 살펴보고, 사우디 왕가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진행 중인 경제도시 프로젝트의 실무자를 만나 발전가능성을 가능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아주대학교 '복수학위 프로그램(Dual Degree Program)',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인턴 취업의 연계 프로그램인 'WEST(Work, English Study, Travel)' 프로그램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대외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나요?

정부와 학교에서 마련한 국제화프로그램에 선발되려면 학교 성적을 잘 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학 능력을 튼튼히 쌓아야 합니다. 토플 성적을 반영하는 복수학위제(Dual Degree)를 제외하고는 모두 토익성적을 중요시했습니다. 아주대학교의 토익사관 학교를 이용해 큰돈을 들이지 않고 토익과 토익 스피킹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군 전역 후에는 한 학기를 휴학하고 복수학위제 파견을 위한 토플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3개월 간 학원의 도움을 받아 첫 시험에서 만족할 만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


로 생활비를 벌며 시험 준비를 병행하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열정으로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근황과 졸업 후 사회 진출의 꿈이 궁금해요.

9월 말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갑니다. 'WEST' 프로그램을 통해 5개월간 어학연수 과정을 밟습니다. 연수 기간 중 영어 공부와 더불어 자격증 시험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귀국 후에는 인턴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은행 RA부서에 입사하여 경력을 쌓을 예정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분야인 만큼 더 노력해서 저만의 경쟁력을 갖추고 싶습니다.

진로를 고민하는 아주대학교 후배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좇다 보면 기회는 보이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 기회를 아주대학교에서 찾았으며 또 다른 기회를 찾아 이제는 미국 땅으로 무대를 옮겨봅니다. 대학시절은 꿈을 형성해나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도 남들 눈에 잘 보이기 위한 당장의 만족이 아닌, 오래도록 남과 비교당하지 않을 자신만의 진취적인 꿈을 찾길 바랍니다. 아주대학교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진정한 상생의 약수... 산학협력 産學協力

실무 위주의 커리큘럼으로 최고의 IT 전문 인재를 양성해온 아주대학교 정보통신대학이 올해 들어 더욱 분주해졌다. 최근 다양한 분야의 산업체 24곳과 산학협력 협약을 맺고 산·학간 교류의 범주를 더욱 넓혔기 때문이다. 이는 아주대학교 정보통신대학이 국내 최초로 도입한 집중교육제도와 국내외 인턴 프로그램, 그리고 IT 발전 추세에 발맞춘 깊이 있는 교육과 연구를 꾸준히 해온 결과다. 어느 곳보다도 발 빠르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산학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아주대학교 정보통신대학을 찾았다.

대학과 기업이 함께 하는 프로젝트

기존의 산학협력이 연구 관리와 인턴십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면 최근 정보통신 분야의 산학협력은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기업체와 대학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해 기획 단계부터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기업은 전공 교수진을 포함한 우수 인력들의 지원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 대학은 실질적인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고 나아가 학생들에게 폭넓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정보통신대 김영길 학장은 산업맞춤형 IT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정보통신대학에서 마련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우리 대학은 기초 전공 이수 후에 보다 심화된 실무형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중교육 후에는 2~5명이 팀을 이루어 산업체에서 제안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팀프로젝트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학생들은 전공 능력을 향상시켜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습득하고 산업체에 입사하게 되면 현업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나는 것이죠.”

더욱이 최근에는 기업에서 대학 측에 프로젝트를 의뢰할 때 팀별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먼저 파악하고 전공 교과 과정 속에 접목시킨 정보통신대학의 노력이 이제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국내 유일, 소프트웨어융합학과의 포부

정보통신대학은 소프트웨어융합학과를 신설하고 올해 정시에서 첫 신입생을 모집한다. 산업 패러다임의 중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하면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기술 산업 시장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진 세계적 추세를 따라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루는 소프트웨어융합학과를 신설한 것이다. 국내 대학 중 처음이자 유일한 시도다. “기존의 기계적인 프로그래밍 수준에서 벗어나 소

“우리 대학은 기초 전공 이수 후에 보다 심화된 실무형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전공 능력을 향상시켜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습득하고 산업체에 입사하게 되면 현업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나는 것이죠.”



프트웨어 전반을 다루는 엔지니어를 길러내는 것이 소프트웨어융합학과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대학원 과정의 실무 중심 교육과 전공 강화 교육을 학부로부터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프트웨어융합학과와 관련된 회의로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정보통신대학 노병희 교수의 설명이다. 소프트웨어융합학과는 벌써 국내 24개 업체와 산학협력 협약을 맺었다. 모바일, 국방, 의료, 자동차 등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다양한 분야 산업체가 대거 참여했다. 뿐만 아니다.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서울어코드(4년제 대학 컴퓨터정보기술 분야의 공학교육 인증을 국가 간 상호 인정하는 국제 협의체)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면서 소프트웨어융합학과는 앞으로 7년 동안 총 38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대학이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갖춰진 셈이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기회의 문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현장형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정보통신대학의 노력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올해 5월, 국내 최대 규모의 게임 회사인 넥슨모바일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면서 게임 산업 분야와의 교류도 확대했다. 현재 IT업계의 최대 화두인 스마트폰 게임 어플리케이션 맞춤 교육은 물론이고 기업체 현장 실습, 공동 연구 등 인적·기술적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길 학장은 “정보통신대학 졸업생들 중 회사 CEO나 연구소 소장들에게 협조를 구해 산업체 인턴십을 더욱 늘리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산학협력을 위한 대학차원의 혜택 공유 의지를 피력했다.

“요즘 기업체에서는 신입사원 채용 시에도 현장 경험의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산학협력은 더없이 중요한 사업이죠. 정보통신대학에서는 산학협력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 전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상 위의... 비상을 준비하다



약학대학 사무실이 들어선 종합관을 찾아가는 길, 말끔히 신축된 건물이 한눈에 들어오자 학교에서도 신설 약대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느낄 수 있다. 마침 수업을 끝낸 약대 신입생들이 밝은 표정으로 건물을 나선다. 약대 사무실을 물어보자, 한 학생이 상냥하게 위치를 설명해준다. 생기 넘치는 표정과 목소리에서 이제 막 신설된 약학대학의 생동하는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생기 넘치는 분위기의 키워드는 ‘열의’

교육과학기술부가 28년 만에 약학대학 정원을 늘리기로 결정한 이래 최종적으로 올해 전국에 신설된 약학대학은 총 15곳. 그중 아주대 약대가 16.95:1로 가장 높은 입시 경쟁률을 나타냈다. 평균 경쟁률 10.02:1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아주대 약대가 신설 약대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인 셈이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약대에 입학한 신입생은 총 20명. 아직 선배가 없어 대학생활이 허전할 법하지만 오히려 교수님들이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어 든든하다. 7명의 전임교수들이 학생 3명씩을 전담해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학생들도 교수 연구실을 찾는 일이 자연스럽다. 더욱이 이번 학기 개강총회는 교수진과 신입생 30여 명이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와인과 함께 했다. 학생들과 더욱 가까워서 대화하려는 문창규 학장의 아이디어였다. 처음에는 교수에게 속내를 털어놓는 일이 어려웠던 학생들도 이제는 학장을 비롯한 교수진에게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한다. 교수진과 학생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쳐 이제 막 시작한 약대의 비상을 도모하려는 분위기. 그야말로 생기와 활력이 넘친다고 할까?



약학대학 이숙향 교수는 이처럼 좋은 면학 분위기를 학생들의 적극적인 태도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약대가 신설되고 한 학기를 지나온 결과, 신입생들이 전반적으로 전공 공부에 만족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모두 '열의'가 넘치니까요. 교수님들은 물론 약학을 배우려는 학생들의 태도에서 열의를 느낄 수 있어요."

아주대 약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경기도 최대 규모 대학 병원 보유, 경기도 최초 지역 임상시험센터와 11개 질환중심 연구센터 설립, 약학의 기본인 기초과학 분야가 탄실한 대학이라는 강점, 그리고 대형 제약사와 연구소가 밀집한 경기 바이오센터와 가까운 지리적 환경. 아주대 약대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러나 무엇보다 아주대 약대가 자신 있게 외치는 분야가 있다. 바로 임상약학. 환자에게 더욱 적절한 약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 약을 가장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사를 키우는 것이 바로 임상약학의 목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약학 교육은 임상약학의 실무실습보다 이론에 치우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되어야 할 약의 종류는 무궁무진하죠. 그 중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필요한 약을 처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약사의 역할이에요. 안전과 효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이 임상약학이 해야 할 일이고, 임상약학계 리더를 키우는 것이 우리 대학 약대의 원대한 포부입니다."

국내 임상약학의 선두주자인 이숙향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를 비롯한 의약화학, 산업약학, 기초약학 분야 최고의 교수진들이 이미 아주대에 등지를 틀었고, 이들 모두 최적의 환경에서 최고의 약사를 배출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모두 함께 준비하는 밝은 내일

종합관 뒤편으로 약학관 신축 공사가 한창이다. 내년 봄 완공 예정이다. 약학관 공사 현장의 분주함에서 비상을 위한 아주대학교 약학대학의 힘찬 날갯짓을 느낄 수 있다.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과 더불어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와의 교류로 밝은 미래가 전망되는 아주대 약대. 특히 고무적인 소식은 CJ 제약회사 연구소가 아주대 캠퍼스 바로 옆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이를 비롯한 유관 연구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성장해나갈 약대에 대한 기대가 더욱 크다.

이처럼 아주대 약대는 유리한 여건을 종합해 최대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신약개발 중개 연구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초 연구부터 임상 실험까지, 신약 개발과 관련한 연구를 중개하는 연결고리로서 아주대 약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해 본다.



삶의 비전을 세우는 3주간의 훈련

아주대학교는 정부가 인정하는 '잘 가르치는 대학'이다.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온 순간부터 자기계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아주대학교는 그 어느 대학에도 없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름 하여 '신입생 집중교육'. 이제 아주대학교만의 전통이자 독특한 신입생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



나의 열정을 생생한 비전으로

지난 여름방학이 시작됨과 동시에 3주간 '신입생 집중교육'이 진행됐다. 올해로 5년째에 접어든 이 프로그램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알찬 내용으로 신입생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올해 중점을 둔 교육내용은 인생의 목표를 스스로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둔 라이프 비저닝(Life Visioning). 단순히 외부 강사를 초청해 강의를 듣는 수준이 아니라 대학 내부에서 더욱 철저히 준비를 했다. 그러니 반응은 더 좋았다.

'라이프 비저닝'은 아주대 교육대학원 교수이자 창조인재개발센터장인 이성엽 교수가 신입생을 위해 직접 지은 워크북으로 진행됐다. 나의 에너지가 가장 부족했던 순간, 넘쳤던 순간 등을 진단해 나의 열정이 어디로 흐르는지 파악하고, 비전을 찾도록 제시하는 이 워크북은 모든 항목을 신입생 스스로 사고하고 글로 적도록 구성되어 있어 주도적인 비전 수립이 가능하다. 이제 막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나선 신입생들에게 꼭 필요한 정체성 수립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그밖에 올해 신입생 집중교육은 글쓰기를 바탕으로 한 토론,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 실용영어에 집중한 교육, 그리고 오페라 관람으로 문화생활을 맛보는 필드 트립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Interview

글로벌 리더로 가는 첫걸음

최근 많은 대학들이 앞다퉀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취업을 위한 '경력 관리'에 치중하거나 허울만 좋을 뿐 내실 없는 프로그램이 허다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아주대는 대학시절 첫 방학을 맞이하는 신입생에 집중해 짧은 시간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래서 탄생한 프로그램이 '신입생 집중교육'이었고, 그 효과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로 나타났다.

교육이 끝난 이후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특히 교육지원수준과 '라이프 비저닝'처럼 특화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막상 여름방학 기간의 3주를 반납하고 대학 수업을 듣는다는 사실에 망설였던 학생들도 프로그램 이수 후에는 생각이 달라졌다. 가장 적절한 시기에 자신에게 필요한 수업을 받았다며, 후배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신입생 집중교육'의 목적은 그 이름처럼 명료하다.

신입생 자신에게는 리더십 및 팀워크 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정체성 확립과 비전을 구축하도록 돕고, 대학 수업을 위해서는 글쓰기, 영어말하기 등 기초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역량을 강화하고, 대학 생활을 위해서는 의사소통능력을 길러 대학 적응력을 높이는 데 있다. 이 모든 목표가 하나로 향하는 지점은 바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밑거름을 마련하는 것. 기본에 충실한 아주대가 바라는 인재상으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신입생 집중교육

여름방학 약 한 달 동안 신입생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프로그램. 리더십 교육, 영어집중교육(토익, 영작문, 회화), 교양 수업(심리, 경제, 유머, 매너), 학습법 강의, 동문 특강 등 내용으로 구성된다. 참여 희망자는 참가 신청서와 영어성적 증명서를 각 학부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매년 5-6월.



“다양한 분야를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해보세요.”

송하석 기초교육대학 의사소통센터장

5년째 접어든 '신입생 집중교육'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2009년 기초교육대학 출범과 더불어 특화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참가 학생 및 학부모님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참여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며 학교의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앞으로 어떻게 수정·보완할 계획인지요?

우리 대학은 다양한 학생 역량 배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계로 신입생 집중교육과 다른 프로그램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각 프로그램들의 차이를 잘 파악하여 자신에게 더욱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안목이 요구되고, 이를 돕기 위해 학교는 신입생들에게 선배들의 경험을 직접 들려주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입생에게 소개하고 싶은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면요?

신입생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인 아주 멘토 프로그램이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교 재학생과 대학원생이 멘토가 되고, 신입생 전원이 멘티가 되어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조언과 도움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멘토는 기본적으로 동일 전공 및 학부의 선배로 배정을 하고 있으며, 면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여 단순한 상담을 넘어 선배배간의 유대감을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우리 대학이 지향하고 있는 '융합 학문'과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이라는 목표는 다양한 분야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로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지만, 대학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학생의 사고 및 선택을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더욱 많은 학생들이 학교가 마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회를 부르는 ‘긍정’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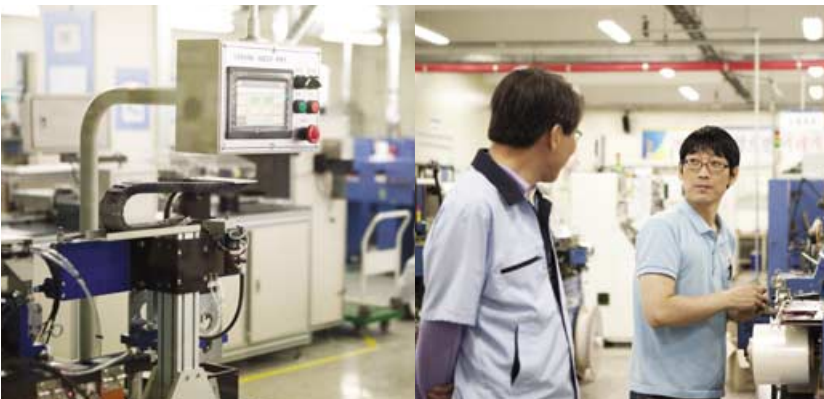
(주)조인셋 대표 김선기(전자공학79) 동문

“우리는 미소 지으며 먼저 인사하고 항상 대화하며 서로 칭찬합니다.”

(주)조인셋에 들어선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캐치프레이즈다. 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력이지만 기술도 결국 사람이 만들어 내니, 사람 존중하는 법을 알고 직원을 관리하는 것이 기업의 성장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언제나 밝은 미소로 직원들에게 먼저 고개 숙여 인사를 건네는 CEO가 있다. 바로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79학번 김선기 대표다. 글 박진희(편집실) 사진 김성재

set®

Joinset®



김선기 대표가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다. 그래서 그는 늘 회사를 돌아보며 직원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넨다.

김선기 대표가 2003년 설립한 (주)조인셋은 열·전자파·정전기 방지에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우리 일상과 떼놓을 수 없는 TV, 냉장고, 휴대폰 등 거의 모든 전자기에 필수적인 부품을 생산한다. 기간으로만 따져보자면 현재 연매출 300억 원을 달성하고 직원 170여 명을 둔 탄탄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까지 10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이 걸린 셈. 그러나 김선기 대표의 사업이 처음부터 탄탄대로였던 것은 아니다.

“졸업을 하고 몇 년간 직장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제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는 걸 느꼈죠. 그래서 1991년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로 창업을 했어요. 그때 제 나이 서른하나였으니 아무 것도 모르고 창업을 한 거죠. 당연히 위기도 많았구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를 저으면 배는 흔들리기 마련이다. 그 흔들림을 위기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고, 기회라고 여기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김선기 대표는 역시 앞으로 나아가는 쪽을 택했다. 직장 생활을 하면 안정된 삶을 꾸릴 수 있었지만 젊은 나이에 창업이라는 선택을 한 것. 그때의 선택에는 지금도 후회가 없다.

“저의 20대는 특별하지 않았어요. 집중할만한 것을 못 찾던 시기였죠. 돌이켜보면 '젊은 시절에 아무 것도 안했구나' 하는 후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의 후회가 30대의 도전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죠.”

조인셋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을 운영한지는 10년 남짓하지만 사실 부품 생산 분야에서 그가 쌓은 내공은 20년 가까이 된다. 지난 20년 동안 그는 새롭게 공부하는 학생의 자세로 쉼 없이 달려왔다. 한 길을 열심히 걷다보면 결국 기회가 찾아 오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은 거죠. 저희가 만드는 부품의 60%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희 회사에서만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 부품의 70%는 해외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인셋이 받은 특허출원만 해도 120여 개에 달한다. 그만큼 부품 시장에서 조인셋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독보적이다. 사업가들에게 그들의 목적이 뭐냐고 묻는다면 열에 아홉은 규모와 이익이라 대답할 것이다. 그것이 성공의 척도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손사래를 친다.

“작은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결국 매출은 비싼 걸 만들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저희는 남이 할 수 없는 것,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시장은 재미가 없잖아요. 시장 자체를 우리가 개척해나가는 거죠.”

그가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다. '먼저 미소 띤 얼굴로 인사하며 칭찬하자'는 회사의 캐치프레이즈는 바로 긍정적인 사고의 출발점인 것이다. 그래서 그는 늘 회사를 돌아보며 직원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넨다. 무엇보다 스스로 긍정적인 자세를 갖기 위한 노력이다.

“사고의 틀을 자유롭게 하되 소신을 갖고 긍정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덕목 아닐까요. 모교 후배들에게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로 나아가라고.”

모르는 곳으로 떠나기보다 누군가 가보았던 길, 미리 닦아 놓은 길을 선택하기는 쉽다. 그러나 김선기 대표는 누구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스스로 개척하는 쪽을 택했고, 결국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냈다. 그 길 위에 긍정적인 사고와 꾸준한 노력,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놓여 있었다. 모교 후배들에게 전하는 그의 이야기가 평범한 조언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은 조인셋과 함께해 온 그의 삶이 증명해주는 '긍정의 힘' 때문일 것이다.

2011학년도 상반기 아주대학교 주요소식

'2011 중앙일보 대학평가' 에서 13위 차지

우리 학교가 9월 26일 중앙일보가 발표한 '2011 대학평가' 에서 13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13위와 동일한 순위다. 올해 평가는 전국 4년제 대학 100곳을 대상으로 했다. 교육여건(110점), 국제화(60점), 교수연구(110점), 평판·사회진출(70점) 등 4개 부문 점수를 합산(총 350점)해 종합성적을 매겼다. 또한 온라인시스템을 가동해 각 대학 자료를 받았으며, 한국연구재단 등이 분석한 연구 실적 관련 자료는 대학과 상호 검증 과정을 거쳤다. 우리 학교는 학생1인당 교육비, 도서자료 구입비 등 교육여건 부문에서 강세를 보였다.

2011 중앙일보 대학평가 순위

순위	대학	순위	대학
1(1)	KAIST	11(10)	인하대
1(1)	KAIST	12(10)	이화여대
2(2)	포스텍	13(13)	아주대
3(3)	서울대	14(17)	동국대(서울)
4(4)	연세대(서울)	14(16)	서울시립대
5(5)	고려대(인양)	16(15)	한국외대
5(6)	성균관대	17(14)	건국대
7(7)	경희대	18(19)	숙명여대
8(9)	한양대	19(18)	경북대
9(8)	서강대	20(24)	전남대
10(12)	중앙대		

- 공동 순위는 가나다 순
- 괄호 안은 지난해 순위
- 본·분교 통합·분리 여부는 대학이 결정

정보컴퓨터공학부 서울어코드활성화 사업 선정 (향후 7년간 매년 6억 원 지원)

지식경제부가 지난 6월16일 발표한 2011년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사업' 중 '서울어코드 활성화사업' 에서 우리 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가 신규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서울어코드는 세계 최초로 4년제 대학 컴퓨터정보기술 분야의 공학교육인증

을 국가간 상호 인정하는 국제 협의체로서 지난 2008년 12월 한국 주도로 출범한 바 있다. 서울어코드 활성화 사업은 서울어코드와 연계한 IT교육 혁신을 통해 IT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양성 및 대학 IT교육의 품질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국내 4년제 대학 컴퓨터·정보기술 관련 학과(전공) 및 IT 4년제 대학 교수를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7년간 매년 6억 원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 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는 이번 사업선정을 통해 향후 'IT융합산업 수요지향적 소프트웨어 융합 엔지니어 육성' 이라는 목표로 유형별(교육/표준/연구형) 교수평가제 도입, 교육우수교수에게 연구 논문 감면 등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학습 질을 높이기 위해 1일 8시간, 주 4일, 8주간 진행되는 집중교육과 소규모 TBL(Team-Based Learning) 그리고 학습부진자를 대상으로 하는 Power-Tutoring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2010년에는 성균관대, 동국대 등 7개 대학이 선정되었고 우리 학교를 비롯해 서강대, 한양대, 경희대 등 총 8개 대학이 2011년 신규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

ACE지원사업과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에

우리 학교 모두 선정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5월9일 발표한 2011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의 지원 대학에 우리 학교가 선정됐다.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은 대학 교육의 질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과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부교육 선도모델의 창출과 확산을 위한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이하 ACE)지원사업' 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다.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과 'ACE지원사업' 은 2011년도에만 각각 2406억, 597억 원의 예산이 책

정되어 있는 대학들의 최대 관심 사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인해 우리 학교는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에서 올해 17여억 원을 'ACE지원사업' 에서는 올해부터 4년간 120여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은 올해 총 165개 대학이 지원해 80개 대학만 선정되었으며 우리 학교는 사업이 시작된 2008년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4년 연속으로 선정된 것이다.

'ACE지원사업' 은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에 최종 선정된 대학 중 선정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신청대학 98개 중 총 11개교를 선정했다. 'ACE지원사업' 은 1단계 서면심사, 2단계 면담평가 및 현장실사 그리고 3단계에서 최종 지원대학과 지원금액을 확정하는 단계로 심사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ACE 선도대학은 작년 11개교에 이어 총 22개교가 됐다. 우리 학교는 '다산(茶山)형 인재 양성을 위한 학부교육의 선진화' 라는 목표로 다산 교양교육 실현(Power CoBSM 등 : 다양한 수준별 의사소통 교육, 강화된 수준별 기초과학 교육), 산업수요 지향적 전공 교육과정 운영, 커리어오리엔티드(Career-Oriented) 비교과 교육과정 구축 그리고 교육의 질 관리체계 구축(교수-학습역량강화, 학업성취도 관리)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사업 준비를 주관한 박영동 교무처장은 "우리 학교만의 교양/전공/비교과/학생선발/학사제도 및 학생지도/교수·학습지원 체계/교육의 질 관리(평가, 환류) 선진화 모델이 이번 선정의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우리 대학이 교육을 잘 시키는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 학교 의학학분야 선도연구센터

지원대상 선정

우리 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2011년도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이공학분야 SRC(센터명: 유전체 불안정성 제어 연구센터)'에 선정됐다.

올해 S/ERC(Science/Engineering Research Center)에는 81개 센터가 신청하여 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의학학 분야에서는 우리 학교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앞으로 유전체 불안정성 제어 연구센터는 7년간 총 90억 원 규모의 국가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우리 학교 유전체 불안정성 제어 연구센터(센터장: 조혜성 교수,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및 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에서는 앞으로 생명체에서 유전체 안정성(genomic integrity)을 유지하는 기전을 연구하고 유전체불안정성 질환(암, 발생질환)의 병인기전을 규명하며, 이들 관련 질환을 제어,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연구하게 된다.

『대학 선도 기술이전전담조직(Technology Licensing Office)사업』 선정

우리 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2011년도 '대학 선도 기술이전전담조직(이하 TLO)'에 선정됐다. 본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5년간 총 280억원의 예산으로 22개 대학을 선정하여 TLO 전담인력의 인건비 및 특허권 보유와 기술이전, 기술사업 활성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리 학교 외에도 서울대, 서강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이 이번 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2단계 사업이며, 우리 학교는 2006년부터 2010까지 5년간 진행된 1단계 사업에서는 성균관대학교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여 매년 3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은 바 있다. 이번 2단계에서는 '선도형'에 선정됨으로써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약 12여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우리 학교는 우수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연구능력에 대한 이미지도 높아질 전망이다. 산학협력단 유재석 단장은 "선도 TLO 지원사업 선정으로 우리 대학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연구와 교육인프라 형성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본 사업 추진을 위한 TFT 기획 및 진행을 총괄한 산학협력팀 나명순 팀장은 "선도형 대학 선정은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앞으로 기업들이 우리 대학의 연구수준을 평가하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 대학 사업선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소프트웨어 융합 발전 위해

24개 업체와 MOU 체결



우리 학교가 올해 신설되어 첫 신입생을 모집하는 정보컴퓨터공학부 소프트웨어융합전공을 위해 지난 8월23일 24개의 국내 IT융합도메인의 소프트웨어업체와 산학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우리 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는 지난 6월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서울어코드 활성화사업'에 선정되어 향후 7년간 총 38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소프트

웨어융합전공을 국내 최초로 학부과정에 신설한 바 있다. 올해 이 전공은 30명을 정시에서 선발하고 내년에는 50명으로 입학인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어코드는 세계 최초로 4년제 대학 컴퓨터정보 기술 분야의 공학교육인증을 국가 간 상호 인정하는 국제 협의체로서 지난 2008년 12월 한국 주도로 출범했다. 소프트웨어융합전공은 소프트웨어 전문 지식 및 기술 능력을 갖추고 IT융합산업에서 요구되는 도메인에 대한 지식과 기본 적응력을 갖춘 소프트웨어융합 엔지니어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졸업이수학점을 128학점에서 전공을 강화하여 140학점으로 상향조정했으며 A/B/F 학점제, IT 집중교육, 인턴십 필수 등을 통해 학생들의 질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향후 소프트웨어융합 분야의 고급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이날 협약식에는 모바일 소프트웨어, 보안, 자동차, 국방, 헬스케어, 에너지 등의 소프트웨어융합 분야의 24개 업체가 참여했다. 소프트웨어융합전공의 노병희 교수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학생들은 기존 컴퓨터공학 분야는 물론 소프트웨어융합관련 산업체로 확장된 폭넓은 취업 기회를 제공받게 되고, 산업체는 전공 교수진을 포함한 전문인력들의 지속적 지원을 받는 산학협력의 상생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1학년도 상반기 아주대학교 주요소식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93% 취업률 달성 (서울·수도권 지역 1위)

본교 공과대학 기계공학부가 93%의 취업률을 달성했다. 이는 <교과부 대학알리미 취업률 통계>를 기준으로 작년 동일시점 대비 4.1% 증가한 수치다.

2011년 기계공학부 졸업생 (2010.8월 및 2011.2월)은 총 150명이다. 이 중 21명은 대학원 진학과 군입대로 조사인원에서 제외되어 총 반영인원은 129명이다. 이 중 9명은 국가고시준비와 취업준비생들이며, 총 129명 중 120명이 취업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취업생들 중 86.6%가 6대 기업군(삼성, 기아, 현대, LG, SK, 두산, GMK) 등 대기업 및 공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부차원에서 <GMK 산학협력 프로그램(자동차 제어시스템 엔지니어 양성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GMK를 비롯한 자동차산업에 취업인원의 증가가 최고상위권 취업률 달성에 기여했다. 이러한 높은 취업률로 본교 기계공학부는 서울·수도권 4년제 대학 기계공학전공학과 전체 2011년 취업률 1위를 달성한바 있으며, 지난 2010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30위권 대학의 기계공학전공학과 전체 2011년 취업률 2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간호대학·임상수기센터·실험동물연구센터 준공식 열려



간호대학·임상수기센터·실험동물연구센터 준공

식이 8월18일(목) 15시에 간호대학·임상수기센터·실험동물연구센터 현관 앞에서 열렸다. 준공식에는 안재환 총장, 이영현 상임이사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간호대학·임상수기센터·실험동물연구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939.06㎡(284.06평)의 건축면적과 4,268.39㎡(1,291.18평)의 연면적으로 완공됐다. 안재환 총장은 축사에서 “새롭게 마련되는 공간에서 수준 높은 연구 활동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 의료산업의 원천기술이 더 많이 창출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약학관 신축 기공식 열려



2012년 2월에 완공될 약학관의 모습

약학관 신축 기공식이 지난 5월3일 약학관 신축부지에서 열렸다. 약학관은 다산관 동측, 현 농구장에 지어진다. 기공식은 안재환 총장과 강태현 총동문회장을 비롯해 학교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약 30여 분간 진행됐다. 약학관은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1,213평의 연면적과 315평의 건축면적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강의실, 실습실, 교수연구실, 전공연구실, 동물처치 및 수술실 등의 공간이 생기며 2012년 2월에 준공된다. 안재환 총장은 “6년제 약학대학의 비전은 첨단 바이오산업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며 “이 약학관에서 세계수준의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 성과가 아주대학교의 발전을 이끌어 주리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KBS '스펀지'에 이상덕 교수의 '토질역학' 시험 소개



무박6일 시험으로 유명한 건설시스템공학부 '토질역학' 시험이 지난 7월 8일 금요일 저녁 KBS2TV의 대표 예능프로그램인 '스펀지ZERO'에 소개됐다. 이상덕 교수가 지도하는 이 수업은 수년 전부터 무박으로 짧게는 3일부터 최대 7일간 기말고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이 교수는 “짧은 학과 역사를 극복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험을 고민하던 중 수일간 시험을 진행하는 방법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험은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팔달관에서 치러졌으며 이 기간동안 스펀지ZERO 제작진 30여 명이 시험 장면을 촬영했다. 방송에서 출연자들은 수차례 ‘아주대’를 언급해 학교의 간접광고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일 동안 열심히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을 통해 ‘잘 가르치는 대학’의 이미지도 확고히 한 계기가 되었다. 방송시간 총 51분 중 ‘무박6일시험’ 부분은 약 16분으로 프로그램 말미를 장식하게 됐다. 동영상은 KBS홈페이지(www.kbs.co.kr)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다.

정보통신대학, (주)넥슨모바일과 업무협약 체결

정보통신대학 미디어학부와 정보컴퓨터공학부는 5월 20일 율곡관에서 (주)넥슨모바일과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넥슨모바일측 임종균 총괄이사, 박애리 경영지원 실장, 강영호 경영지원팀직원이 참석했으며, 아주대 김성수 정보통신대학 학장을 비롯한 류기열, 경민호, 오규환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와 기업이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양성과 기업의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맞춤형 교육, 상호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활동을 포함하는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동시에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인턴십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한다. 김성수 정보통신대학 학장은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들의 유망 중소기업 개발사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양측이 서로 노력하자”고 밝혔다. 한편 넥슨모바일은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국내 대표 모바일 게임사로, 모바일 게임 ‘메이플스토리’ 시리즈 및 스마트폰용 게임 ‘카트라이더 러쉬’ 등 다양한 인기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다.

10억 기부한 김용득 교수 식수행사 열려



10억 원의 거액을 기부한 뒤, 지난 2월 정년퇴임한 김용득 교수의 업적을 기념하는 식수행사가 6월 24

일 원천관 앞 잔디밭에서 열렸다. 수행사에는 김용득 교수를 비롯해 안재환 총장, 정보통신대학 교수와 김 교수의 제자들이 참석했다. 안재환 총장은 “모으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는 김 교수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교수도 “아주대가 최고 명문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주대에서 38년간 받은 사랑을 기부로 표현한 것 뿐이다. 이런 행사도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교수는 2009년 10억 원을 약정한 뒤, 3회에 걸쳐 모두 완납한 상태이며 올해 2월 정년퇴임했다.

TOD기반 지속가능 도시·교통연구센터 개소식 열려



교육과학기술부선도연구센터(ERC)에 선정된 우리 학교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기반 지속가능 도시·교통연구센터가 지난 4월27일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안재환 총장, 교육과학기술부 윤현주 국장, 한국연구재단 박성현 본부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선도연구센터 육성사업 이공학 분야 우수연구센터로 선정된 우리 학교 TOD기반 지속가능 도시·교통연구센터는 향후 7

년간 정부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12명의 교수급 핵심연구원을 포함, 총 65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된 이 연구센터는 교통기술과 도시계획 기술의 부정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의 해결

책을 찾기 위해 설립됐다. 연구센터는 대중교통 중심의 지속가능 도시·교통 통합모델과 요소기술 개발을 연구하고 대중교통 지향형 도시를 위한 교통 계획, 교통수요관리기술과 모형 개발 그리고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건축과 교통통합 설계 기법을 주요 연구하게 된다. TOD기반 지속가능 도시·교통연구센터 최기주 센터장(환경건설교통공학부 교수)은 “이번에 설립된 연구센터를 통해 전 세계적 의제인 온실가스와 기후변화에 있어 도시·교통 부문의 역할이 커지는 추세에 동참하기 위해 녹색교통체계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적 해결 방안을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모델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중 비즈니스센터 개소식 열려

우리 학교가 지난 4월27일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과 공동으로 한중 비즈니스중국어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 센터는 우리 학교와 중국 대외경제무역 대학 사이 본격적인 학생 교류에 앞서 사전 교육과정을 전담하게 된다. 우리 학교는 한국인 학생 가운데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신입생을 선발, 한중 비즈니스센터에서 중국어, 경영·경제 기초과목 등을 1년 동안 교육한다. 이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 2학년에 진학하게 된다.

현지 학생들은 중국 소재 아주대사무소에서 한국어 등 예비교육을 받은 후 아주대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된다. 이 센터는 경기도 소재 기업체 임직원의 중국 파견 교육,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중국어 등 교양 강의도 맡는다. 앞서 우리 학교는 지난해 7월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과 비즈니스어학센터 및 사무소 설치에 관한 협정을 맺은 바 있다. 안재환 총장은 “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한국과 중국의 상호 교류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주대학교 교수 및 연구소식

제해성 교수, 대통령표창 수상



제해성(건축학부, 사진) 교수가 '2011 건축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제 교수는 국내 최초로 총괄건축가(Master Architecture, MA)를 수행하며 한국건축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인 점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총괄기획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건축의 날 기념식은 대한민국 건축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건축의 공공성과 문화적 가치에 대한 올바른 건축문화를 알리기 위한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는 이상정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을 비롯해 400여 명이 참석했다.

1987년부터 우리학교 건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제 교수는 현재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문화진흥분과 위원장, 한국도시설계학회 수석 부회장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건축 관련 논문 60여 건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하고, 다수의 국가 R&D과제를 수행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 도시건축분야 전문가로 손꼽히고 있다.

이지연 교수 논문, 『사이언스 Science』지 게재



약학대 이지연 교수의 논문이 세계적 과학저널 『사이언스(Science)』지에 실렸다. 사이언스지는 미국 과학진흥협회(AAAS: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에서 발행하는 과학전문 저널로서 영국의 『네이처(Nature)』와 함께 세계 과학저널의 쌍두마차로 불릴 정도로 과학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이 교수의 논문은 '효소의 다이내믹한 움직임을 제거함으로써 단백질의 구조적인 움직임이 화학반응단계에 영향 끼침을 증명(A dynamic knockout reveals that conformational fluctuations influence the chemical step of enzyme catalysis)'한 것이다. 이 논문은 기질(基質, substrate)이 효소에 결합한 후 생기는 화학적 반응에서 단백질 움직임에 대한 역할을 규명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논문은 박테리아에 존재하는 효소인 디히드로엽산 환원효소(Dihydrofolate reductase)의 돌연변이 연구를 통해 1000분의 1초 단위에서 일어나는 특정 움직임(fluctuation)을 제거하면 효소 반응의 핵심이 되는 화학적 변화단계를 손상시킨다는 것을 효소반응속도연구(Enzyme Kinetic)와 핵자기공명분광법(NMR spectroscopy)을 이용해 실험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 결과로써 1000분의 1초 단위에서 일어나는 입체구조적 변동(conformational fluctuation)과 효소반응의 상관관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것이다. 디히드로엽산환원효소(Dihydrofolate reductase)는 항생제나 항암제 의약품의 표적물질

(약물과 같은 화학물질이 작용할 수 있는 수용체)로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박테리아 내 존재하는 효소이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서 효소반응 메커니즘 연구와 새로운 단백질의약품 개발하는 데 있어 단백질에 대한 이해를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교수는 "단백질의 움직임과 기능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함으로써 약물의 효과나 선택성 측면에서 신약개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물질개발의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서울대 약대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친 뒤 텍사스대학교 오스틴 캠퍼스(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유기화학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0년 9월 아주대 약학부 교수로 임용됐다.

김도영 교수, 기초연구 우수성과 선정



김도영(경영학부) 교수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11년 기초연구 우수성과'에 선정되어 9월 22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인증패를 수여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학문적,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우수성과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기초연구 우수성과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이공계 기초연구 부문 27건, 인문사회연구 부문 8건, 정책연구 부문 15건 등 총 50건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김 교수의 논문은 '위험감수성에 따른 문화적 차이'로서 한국인들이 집단구성원에 동조하는 경향이 다른 문화에 비해 강하며 이는 집단의사결정 시 원하지 않는 부작용

을 이끌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개미투 자자들의 비합리적인 투자, 조직 내 왕따 현상 그리고 거리응원과 시위문화 등이 김 교수의 논문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이 논문은 지난 2010년 의사결정 분야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SCI급 학술저널인 『판단과 결정(Judgment and Decision Making)』에 게재된 바 있다.

한편 이번 우수성과는 일반국민들에게 쉽게 이해되고 체험될 수 있도록 국립중앙과학관의 첨단과학관에서 9월22일부터 10월5일까지 특별 전시됐다.

특별전시회가 끝난 뒤에는 전국 주요 도시 KTX역사에서 순회 전시된 후 다시 국립중앙과학관의 첨단과학관에서 1년간 상설 전시될 계획이다.

송봉섭 교수, 스프링거 출판사 통해 제어공학 분야 도서 출판

연구원, 박사급의 제어공학도들을 위한 교재

송봉섭 교수(기계공학부)가 미국 스프링거(Springer)출판사를 통해 영문판 제어공학 교재인 '비선형시스템의 동적표면제어(Dynamic Surface Control of Uncertain Nonlinear Systems)'를 출판했다. 이 책은 송 교수와 UC 버클리(UC Berkeley)의 칼 헤드릭(J. Karl Hedrick)교수가 공동 저자로 나선 모노그래프(monograph) 형태의 전공서적으로 자동차, 로봇과 같은 메카트로닉스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비선형 제어 시스템 설계에 대해 이론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선형제어시스템 설계에 효율적으로 적용되는 최적화 기법을 송 교수와 헤드릭 교수에 의해 개발된 동적표면제어(DSC)를 사용하여 비선형 시스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동적표면제어란 비선형 시스템 제어방식의 하나로서 연구원이나 박사급의 전문가들에게 유용한 최신 기법이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서는 강인제어, 고장감래 등 불확실성 하에서도 결과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문제들도 다루고 있다. 자동차나 로봇 분야에 적용되는 예를 보여줌으로써 불확실성을 가진 비선형시스템에 대한 동적표면제어의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송봉섭 교수는 UC 버클리에서 기계공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은 뒤 2004년 3월부터 우리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2009년 기계공학과장을 역임한바 있다.

분자과학기술연구센터 소속 연구교수

박은정 박사 대통령 펠로우쉽에 선정

우리 학교 분자과학기술연구센터 (소장: 이분열) 소속 연구교수인 박은정 박사가 대통령 펠로우쉽 부문에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한국연구재단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에게 연구기관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박은정 박사를 비롯한 15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지속적인 학술연구 활동과 연구능력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지원을 받게된다.

박은정 박사는 '독성학적 관점에서의 생체친화적인 나노물질의 특성 규명 및 생산'이라는 연구주제를 바탕으로 9월부터 향후 5년간 매년 1억 5천만 원씩 총 7억 5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박은정 박사의 멘토 교수인 동 연구소 소속의 최상돈 교수는 "박 박사는 열정적으로 일하는 차세대 녹색산업의 선구자로 앞으로의 성과에 크게 기대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의대 정민환 교수팀,

선택 관장하는 뇌부위 · 작용 메커니즘 규명

의학과 정민환 교수 연구팀과 미국 예일대 신경생물학과 이대열 교수팀과 공동으로 쥐 실험을 통해 뇌의 앞쪽 윗부분(전두엽)에 속하는 보조운동피질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행동 선택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지난 8월17일 밝혔다. 연구결과는 신경과학 분야 학술지 『네이처뉴로사이언스』 온라인판 최신호에 게재됐다. 사람이 별 판단 없이 습관적으로 행동할 때는 뇌의 기저핵이라는 부분만 작동하지만, 주식투자처럼 어떤 큰 보상이 예상되는 가치판단은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관장한다. 그러나 일단 가치판단이 끝나고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갈 때는 한 부위가 관장을 해야 효율적이다. 연구진은 갈증을 느끼는 쥐를 좌·우 두 갈래 길이 있는 실험장치에 두고 양쪽에서 물이 나올 확률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예를 들어 오른쪽 길 끝에 물이 있을 확률을 70% 이상 수준으로 한동안 유지하면 쥐는 출발선에서부터 물을 얻을 확률을 따져 오른쪽 길로 향했다. 이때 쥐의 뇌 여러 부위에서 나오는 신경신호를 분석한 결과 쥐가 길을 선택하기에 앞서 전방 이차운동피질에서 가장 먼저 신호가 포착됐다. 쥐의 전방 이차운동피질은 사람 뇌의 보조운동피질에 해당한다.

정 교수는 "쥐의 전방 이차운동피질을 인위적으로 망가뜨린 뒤 다시 실험하자 쥐는 좌·우 방향을 무작위적으로 선택해 결국 물을 많이 얻지 못했다"며 "이번 실험을 통해 행동 선택을 담당하는 부위가 보조운동피질인 것이 확인돼, 가치판단이나 행동선택에 장애가 있는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 등의 원인이 규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아주대학교 교수 및 연구소식

이분열 교수의 CO₂플라스틱 KBS에서 소개



최근 이분열 교수(응용화학생명공학부)가 개발한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연구가 세간의 많은 관심을 증명하듯 지속적으로 국내외 방송사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지난 8월 1일 KBS1TV '과학카페'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두 얼굴'이라는 주제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방법들을 다루었고, 그 방법들 중 하나로 이 교수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을 집중 소개했다.

이 교수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은 지난해 10월 과학카페 '탄소 잡는 녹색과학' 편에서 이미 다룬바 있으며, 일본 NHK에서도 '미래의 플라스틱'이란 주제로 역시 이산화탄소 플라스틱을 지난해 4월 방송했다.

이 교수가 개발한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제조기술은 중합촉매 기술로 총 중량의 44%가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친환경 플라스틱 제조 핵심기술이다. 이산화탄소 플라스틱은 연소할 때 그을음 등 유해가스가 발생되지 않고 나무가 타듯 깨끗하게 연소되기 때문에 플라스틱 폐기와 관련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열을 가해도 환경호르몬이 배출되

지 않아 친환경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산화탄소 플라스틱은 이 교수가 지난 2008년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당시 제조 핵심기술을 SK에너지(현 SK이노베이션)로 특허 이전에 성공한 바 있다. 또한 이 교수는 최근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이외에도 4족 금속 화합물(촉매)을 발명해 호남석유에 기술을 이전하기도 했다.

기초교육대학 이경재 교수 저서, 2011년도 기초학문육성 우수학술도서에 선정

기초교육대학 이경재 교수의 저서인 <한설야와 이데올로기의 서사학(소명출판사, 2010)>이 대한민국학술원의 '2011년도 기초학문육성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됐다. 선정된 도서는 이 교수의 저서를 비롯해 총 62종 64권이다. 대한민국학술원은 학술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학자를 우대 지원하고 학술연구와 학술진흥에 관한 정책자문 및 국내외 학술교류를 통해 학술발전에 이바지하도록 국가에서 설립한 대한민국 학자들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또한 2002년부터 매년 기초학문분야의 연구 및 저술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학술도서 및 동서양고전 중 우수 국역서를 선정해 대학 및 연구소 등에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길준규 교수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



길준규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지난 6월 24일 한양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공법학회 제163회 학술대회 및 제 46차 정기총회'에서 행정법 분야 신진학술상을 수상했다. 1956년 창립된 한국공법학회는 헌법, 행정법을 비롯한 공법분야의 학술단체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길 교수는 82편의 연구논문과 33권의 책을 저술한 업적을 인정받아 한국공법학회가 수여하는 유일한 학술상인 신진학술상을 수상하게 됐다. 행정법분야에는 길 교수와 함께 고려대 이희정 교수가 수상했으며 헌법분야에서는 올해 수상자가 없었다. 길 교수는 독일 쾰른대학교에서 경제행정법으로, 한양대학교에서는 정보통신법으로 박사학위를 각기 수여받았다.

2011 학년도 상반기 아주대학교 기부 소식



아주대 동문회 장학기금 2억 5천여만 원 전달



동문장학 장학증서 전달식이 열렸다. 장학증서 전달식은 10월 11일 오전 11시 영상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총 150명의 재학생들에게 2억5천6백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동문회는 수년 전부터 73동문 기부, 장학금 물려주기 등의 캠페인을 통해 장학기금을 적립해 왔으며 모금된 기부금 중 일부를 이번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강태현 총동문회장은 “선배로서 후배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데 조그만 힘을 보태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에 안재환 총장도 “후배들이 학업에 더욱 열중할 수 있도록 선배들이 도움을 주는 것이기에 더욱 뜻 깊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SC제일은행 장학기금 3억 원 전달



SC제일은행이 우리 학교에 총 3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증서 전달식은 10월 6일 오전 11시 율곡관에서 열렸으며, 재학생 150명이 장학금 수혜를 받았다. 안재환 총장은 “SC제일은행의 이번 지원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학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고, 학업성취도 향상이 아주대학교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달식 행사에는 장학금 수혜 학생들과 아주대 안재환 총장, 송현호 학생처장, 송영진 SC제일은행 경기남부지역본부장, 정승화 수원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대학원장 임한조 교수, 발전기금 1천만 원 기탁

지난 3월 1일부로 대학원장에 부임한 전자공학부 임한조 교수가 학교 건축기금으로 활용해 달라며 3월 22일 발전기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임 교수는 “보직수당을 발전기금으로 기탁하는 것일 뿐이다. 특별한 의미가 없다”면서 “우리 대학에 건물이 필요한 만큼 건물 건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아주대에 1974년에 부임하였으며, 프랑스 Université des Sciences et Techniques du Languedoc에서 1982년에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연구처장, 대학원장, BK21 분자과학기술사업단장, 나노기술연구협의회 회장, 한국과학재단 기초연구단 본부장 등으로 활발한 대내외 활동을 펼친 바 있다.



공공정책대학원 한마음장학회, 장학금 2천만 원 전달

공공정책대학원 한마음 장학회가 지난 9월 6일 총장실을 방문해 장학금 2천만 원을 전달했다. 안재환 총장은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석호현 한마음장학회 회장, 이기우 총동문회 회장, 김인재 원우회장, 박현중 부동산최고위 15기 회장에게 “장학회의 뜻에 따라 사회과학대학 학부생 중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전달하여 가치 있게 장학금이 사용되도록 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장학금은 사회복지전공 졸업생 11명이 기부한 100만원을 시작으로 동문 바자회, 부동산최고위 동문, 재학생들이 주최한 김밥축제 등의 행사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적게는 1만원부터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것이다.



신용순 교수, 장학금 1천만 원 기부

수학과 신용순 교수가 지난 6월 27일 장학금으로 1천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금은 신 교수가 퇴임식을 앞두고 학교에 대한 고마움을 전달하기 위해 수학과 장학금으로 기부한 것이다. 감사패 전달식은 신 교수와 안재환 총장, 방승진 수학과 주임교수, 대학발전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 13일 총장실에서 열렸다. 안재환 총장은 “교내 구성원이 퇴임 시 학교에 기부하는 것을 아름다운 전통으로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서강대-연세대-인하대에서 각각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78년 본교에 부임해 올해 8월 31일 퇴임했다.

Donation News

2011 학년도 상반기 아주대학교 기부 소식



재료공학과 총동문회, 발전기금 5천4백만 원 약정



재료공학과 총동문회에서 6월 20일 5천4백만 원의 발전기금을 약정했다. 이 중 3천만 원은 건축기금으로, 2천4백만 원은 장학금으로 재료공학과 후배들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재료공학과 총동문회장 김기호(84학번) 동문은 “이번 발전기금은 재료공학과 동문들이 마음을 모아 학교와 후배들을 위해 쓰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부하게 됐다. 학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약정식에는 안재환 총장을 비롯해 재료공학과 총동문회장 김기호(84학번) 동문, 부회장 안승태 (85학번) 동문, 총무 문재경(86학번) 동문, 정형식 화공신소재공학부장, 김도영 대외협력처장, 전경근 학생처장이 참여했다.



박진호 동문, 1천5백만 원 발전기금 기부



박진호 (전자, 83) 동문이 학교 건축기금으로 지난 3월31일 1천5백만 원을 기부했다. 현재 삼성전자 상무로 재직 중인 박 동문은 “30년 전, 아주대 재학시절 임한조 교수님과 맺었던 인연덕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 작은 성의지만 모교를 위해 보탬이 되고싶다”고 밝혔다.



박창해 동문, 1천만 원 건축기금 납입



박창해 동문(전자 83)이 지난 4월15일 건축기금으로 1천만 원을 납입했다, 박 동문은 임한조 대학원장의 제자이며 현재 미국 모토로라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교수님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해 학교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야기 하던 중 학교 건축기금으로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 박 동문은 “학교를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영광이다. 좋은 곳에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 3기 이창민 씨, 결혼식 축의금 3백만 원 장학금으로 기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이창민 씨가 결혼식 축의금을 장학금으로 기부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창민 씨는 지난 7월 치러진 본인의 결혼식에서 답지한 법학전문대학원 동기들의 축의금 3백만 원을 최근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이 씨는 “동기들의 큰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잘 치른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라며 “동기들 중에 자신보다 어리고 힘든 학생들이 많은데, 좋은 취지에서 이 축의금이 동기들에게 되돌려져서 유용하게 쓰인다면 더없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역 육군 장교로 재직하며 우리대학 법학전문대학원 3기로 재학 중인 이창민 씨의 이번 기부는 진정한 아름다운 나눔과 실천을 몸소 보여준 사례가 됐다.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김기권 회장, 축구부 전국대회우수기념 단복기증

본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김기권 회장이 9월 14일 축구부 선수들에게 단복을 기증했다. 김기권 회장의 이번 기증은 본교 축구부가 전국대학 축구대회에서 우승한 쾌거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기증으로 축구부 선수 35명 전원이 단복을 받게 됐다. 김기권 회장은 “단복 기증으로 축구부 선수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선수들이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 아주대 축구부의 위상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주대학교 기부 안내

한국의 대학들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화, 국제화의 물결 속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는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대학이 아니라 무한경쟁을 기회 삼아 '더욱 앞서가는 대학',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는 대학' 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를 사랑하는 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1. 기부금 종류

일반기부금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학교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학에 일임한 기금

지정기부금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기금 (장학기금「○○○장학 등」/ 시설기금「산학연구동 건립기금 등」/ 연구지원기금)

목적기부금 모금 캠페인 등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부한 기금 (「1-1-1 캠페인」 기금, 「장학금물려주기 캠페인」 기금 등)

현물기부 자산가치가 있는 유·무형 자산의 기부 (실험실습장비, 도서, 그림, 교육용소프트웨어 등)

2. 특별목적 기부캠페인

1-1-1 캠페인 1분이 1달에 1만 원씩 십시일반으로 내주시는 소중한 기부금이 모여 재학생 장학금으로 쓰여집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주대생 후원의 집 캠페인 지역사회와 아주대의 협력을 통한 상생(相生)캠페인, 아주대 주변상가 및 관심있는 업체가 재학생들의 장학금 모으기에 동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장학금 물려주기 프로그램 아주대학교는 전통적으로 장학금이 매우 많은 대학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장학금, 이제는 후배들에게 물려주십시오. 장학생 선배들의 기부를 부탁드립니다.

축구부 후원 프로그램 아주대는 수많은 우승과 유명 국가대표 선수들로 널리 알려진 대학축구의 명문입니다. 아주대 축구부가 축구명가로서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세제혜택

법인세 비과세 법인 명의로 출연하신 경우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되어 출연금이 과세대상으로부터 제외됩니다.

상속세 비과세 상속재산을 출연하신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으로부터 제외됩니다.

개인소득 비과세 개인의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을 출연하신 경우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과세대상으로부터 제외됩니다.

종합 소득공제 개인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 소득을 출연하신 경우 종합소득으로부터 공제되어 과세대상으로부터 제외됩니다.

4. 기부금 납입방법

무통장입금 (예금주 : 아주대학교)
SC제일은행 632-20-299599
국민은행 203901-04-011558
우체국 103622-01-005050

자동이체(CMS) 기부자가 지정한 계좌에서 매월 25일 자동으로 출금됩니다.

급여공제 교직원의 경우 약정 후 급여공제를 통해 매달 분납하실 수 있습니다.

5. 기부금액에 따른 예우 내용

예우내용	~3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5천만원~	1억원~
기념품 증정	●	●	●	●	●	●
건강검진권 증정		●	●	●	●	●
감사패 증정			●	●	●	●
총장 만찬 초청				●	●	●
1년무료주차권 발행					●	
평생무료주차권 발행						●
개인기념일 축하						●

건물 또는 실 명명 : 고액기부자(1억 원 이상)중 상당한 예우가 필요한 경우(고액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별도 시행)
공통사항 : 감사장 발송, 기부영수증 발행, 달력(다이어리) 증정, 정기간행물 및 학교홍보물 발송, 발전기금 간행물 게재 및 우승, 학교행사 우선 초대

장학 및 발전기금 기부내역 2011년 2~7월

동문

기부자명	관계/소속	기금종류
강산규	ITSD대학원	ITSD대학원 발전기금
곽석환	ITSD대학원	ITSD대학원 발전기금
김덕현	ITSD대학원	ITSD대학원 발전기금
김성철	공경76	피투피 장학금
김숙영	영어80	영문학과 장학금
김승범	경영90	경영대학 장학기금
김용범	ITSD대학원	ITSD대학원 발전기금
김용태	심리90	심리학과 발전기금
김중권	전자73	학군단 장학금
김춘구	화학78	분자과학기술학과 발전기금
나창용	경영82	경영대학 장학기금
노광호	ITSD대학원	ITSD대학원 발전기금
류승우	화학91	자유기금
문재경	재료86	재료공학과 동문회 장학금
박성진	전자86	장학금물려주기
박진호	전자83	건축기금
박정해	전자83	건축기금
배동수	ITSD대학원	ITSD대학원 발전기금
백승훈	불어79	불어불문과 장학금
설영진	ITSD대학원	ITSD대학원학생 행사지원금
신재상	ITSD대학원	ITSD대학원 발전기금
양승철	산업시스템00	물류소화회 장학기금
음광열	산업대학원	산업대학원 발전기금
이경임	ITSD대학원	ITSD대학원 발전기금
이종연	경영82	경영대학 장학기금
이주영	산업대학원	산업대학원 발전기금
이호준	ITSD대학원	ITSD대학원 발전기금
이흥기	ITSD대학원	ITSD대학원 발전기금
임한민	ITSD대학원	ITSD대학원 발전기금
장삼진	경영대학원07	공공정책대학원 장학금
조형준	ITSD대학원	ITSD대학원 발전기금
최영규	ITSD대학원	ITSD대학원학생 행사지원금
최재승	경제96	건축기금
한창석	ITSD대학원	ITSD대학원 발전기금
홍성길	경영83	경영대학 장학기금
(사)아주대학교	대표:강태현	아주CEO포럼 장학금
동문장학회	(전자75)	
(주)경봉	대표: 양남문 (ITSD대학원)	ITSD대학원 발전기금 ITSD대학원학생 행사지원금

기부자명	관계/소속	기금종류
(주)남경	대표: 김상윤 (ITSD대학원)	ITSD대학원 발전기금
텔레콤		
(주)문정	대표:정성호 (ITSD대학원)	ITSD대학원학생 행사지원금
이앤씨		
(주)비콘힐	대표:한균(건축96)	도시개발학과 장학금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주)서돌	ITSD대학원	ITSD대학원학생 행사지원금
전자통신		
(주)온텍	ITSD대학원	ITSD대학원학생 행사지원금
시스템		
(주)하이젠	대표:변기용 (기계75)	장학금물려주기
상사		
(주)한일	대표:김승진 (ITSD대학원)	ITSD대학원 발전기금
디스플레이		
(주)홍익	대표:성낙진 (ITSD대학원)	ITSD대학원 장학금
기술단		
건축학부	건축학부	건축학부 발전기금
학생일동	학생일동	
모루시스템	대표:이정준 (ITSD대학원)	이정준장학, ITSD대학원학생 행사지원금
미라클전자	대표:김기호 (재료84)	김기호장학
안동영주	아주대학교	스백장학
항우회	안동영주항우회	
이씨켄아시아	대표:최영규 (ITSD대학원)	ITSD대학원 장학금
아이티에스(주)		

학부모

기부자명	관계/소속	기금종류
박춘자	학부모	(08학부모행사) 정보및컴퓨터공학부 발전기금
안종길	학부모	(09학부모행사) 자연과학부 발전기금

교직원

기부자명	관계/소속	기금종류
강영화	교직원	청아회 장학금
고병수	교직원	청아회 장학금
고영배	교수	청아회 장학금
구지영	교직원	청아회 장학금
권건보	교수	법과대학 발전기금

기부자명	관계/소속	기금종류
권오필	교수	청아회 장학금
권혁표	교직원	청아회 장학금
김경호	교직원	청아회 장학금
김광섭	교수	산업정보시스템공학부 발전기금
김광윤	교수	경영대학 장학기금
김근	교직원	청아회 장학금
김동석	교직원	청아회 장학금
김두현	교수	도서관 발전기금
김병관	교수	사회과학대학 발전기금
김상배	교수	청아회 장학금
김서용	교수	청아회 장학금
김순석	교직원	청아회 장학금
김영기	교직원	청아회 장학금
김영래	교수	사회과학대학 발전기금
김용득	교수	김용득장학 · 자유기금
김윤기	교직원	의과대학 발전기금 · 자유기금
김재호	교수	청아회 장학금
김정호	교수	정보컴퓨터공학부 장학금
김형근	교직원	청아회 장학금
김형식	교직원	청아회 장학금
문헌배	교직원	청아회 장학금
박만규	교수	불어불문과 발전기금 청아회 장학금
박민경	교직원	청아회 장학금
박범	교수	청아회 장학금
박성숙	교직원	청아회 장학금
박승진	교직원	청아회 장학금
박중채	교직원	청아회 장학금
박지원	교직원	청아회 장학금
손민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신경철	교직원	청아회 장학금
신용순	교수	수학과 장학금
신형섭	교직원	자유기금
안영찬	교직원	자유기금
양광모	교직원	자유기금
양일열	교직원	청아회 장학금
오승한	교수	청아회 장학금
오원근	교직원	청아회 장학금
왕지남	교수	청아회 장학금
위영철	교수	일반대학원 위영철장학
유남경	교직원	청아회 장학금

기부자명	관계/소속	기금종류
윤혜정	교직원	청아회 장학금
이강준	교직원	청아회 장학금
이교범	교수	정보통신대학 건축기금 청아회 장학금
이명희	교직원	청아회 장학금
이병근	교직원	자유기금
이상수	교수	청아회 장학금
이석원	교직원	청아회 장학금
이수영	교직원	청아회 장학금
이은경	교직원	청아회 장학금
이은호	교직원	청아회 장학금
이해영	교수	청아회 장학금
이흥수	교직원	청아회 장학금
인정숙	교직원	청아회 장학금
임재성	교수	청아회 장학금
임한조	교수	건축기금
장주아	교직원	청아회 장학금
정말희	교직원	생명공학부 장학금 청아회 장학금
정영근	교직원	개교50주년기념관 건립기금
정우준	교직원	청아회 장학금
정해근	교직원	자유기금
제갈훈	교직원	교육기금
조영호	교수	장학금물려주기·청아회 장학금
진성호	교직원	자유기금
최원	교수	중소기업부서센터 발전기금
최희자	교직원	청아회 장학금
홍영수	교직원	청아회 장학금
황원복	교직원	청아회 장학금

일반

기부자명	관계/소속	기금종류
강영목	일반	자유기금
박제민	일반	산업대학원 발전기금
(재)경동 장학재단	이사장·김용욱	경동장학
(재)구원 장학재단	이사장·황필상 (기계73)	구원장학
(재)네오딘 의학연구소	일반	의과대학 발전기금
(재)서울 의과학연구소	일반	의과대학 발전기금

기부자명	관계/소속	기금종류
(재)아경 장학재단	이사장·한재수 (경영대학원96)	아경장학 및 아경학술세미나 지원금
(주)국민은행 신내동지점	일반	일반대학원 사학과 장학금
(주)디엔비 건축사사무소	일반	공과대학 건축학부 행사지원금
(주)삼우 종합건축사 사무소	일반	공과대학 건축학부 행사지원금
(주)수원교차로 (주)우리은행 동수원지점	일반	동아리지원금(ASA) 일반장학금
(주)종합 건축사사무소 디자인캠프 문박디엔피	일반	공과대학 건축학부 행사지원금
(주)창조종합 건축사사무소	일반	공과대학 건축학부 행사지원금
SC제일은행 수원	대표·정승화 (경영78)	자유기금
대창기업(주)	일반	공과대학 건축학부 행사지원금
미래에셋 증권주식회사	일반	자유기금
비티에스 테크놀로지스(주)	일반	일반대학원 인턴쉽장학금
삼광의료재단	일반	의과대학 발전기금
영동상사	일반	의과대학 발전기금
의료법인 녹십자재단	일반	의과대학 발전기금
주행림종합 건축사사무소	일반	공과대학 건축학부 행사지원금
지에스건설(주)	일반	공과대학 건축학부 행사지원금

아경장학금

기부자명	관계/소속
권안석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33기
김민수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34기
김성원	동문 기업 직원
김원식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17기
김정임	아경장학재단 간사

기부자명	관계/소속
김진광	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37기
김형균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34기
문명식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30기
박경주	경영대 교수
박대관	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40기
박주연	경영대학원총동문회 간사
박현명	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7기
백성기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30기
서창원	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39기
성시순	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37기
성열학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36기
신장용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4기 (아경장학재단 제 2부이사장)
아경포럼	경영대학원총동문회 아경포럼 (회장 정규수)일동
아주대경영 대학원 교학팀장 (권혁표)일동	경영대학원 교학팀
안병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18기 (아경장학재단 이사)
안섬규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36기
윤호정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36기
이의준	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37기
이종철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43기
이태영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37기
전병찬	경영대학원 MBA_Main Campus 35기
조영호	경영대학원장
최고45기 동창회	경영대학원 최고 45기 동창회 (회장 이대구)일동
최근해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38기
최성근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33기
한재수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18기 (아경장학재단 이사장)
홍순학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16기 (아경장학재단 이사)
gc43기 동창회 (회장 김도유)일동	경영대학원 gc43기 동창회
mc43기 동창회 (회장 정태국)일동	경영대학원 mc43기 동창회

1-1-1 캠페인 기부내역 2011년 2~7월

동문

기부자명	관계/소속
갈원모	공경80
감정규	경영79
강기현	화공79
강두경	산정97
강명희	경영80
강석배	경영83
강석환	화공81
강신구	화공79
강신호	전자74
강윤환	화공80
강진모	물리88
강태현	전자75
강호출	재료84
강훈	화공76
강희석	전자84
강희진	경영86
경장현	경영84
경태영	경영80
고건웅	미디어03
고동식	전자80
고병각	산정96
고성민	환경85
고재만	전자80
고종섭	공경77
곽육경	불문80
곽정신	경영96
곽창식	경영83
구병춘	기계81
구유희	기계87
구자현	기계76
권광우	경영90
권기형	전자80
권범윤	기계75
권영민	전자79
권오중	전자89
권재일	의학89
권주빈	전자89
권주연	국문83
권혁동	산공79
권혁면	화공75
금동순	기계78
김경규	경영87
김경현	전자75
김경희	기계79
김경희	불문81
김규진	경영88
김근	전자97
김기섭	재료84
김기준	경영 대학원05
김기창	경영대학원06
김기태	기계79

기부자명	관계/소속
김기현	교육대학원00
김기호	재료84
김길성	경영90
김남기	경영80
김대용	화공96
김대홍	공경77
김동규	경영86
김동백	경영90
김동석	행정90
김동욱	토목92
김두용	공경78
김두호	전기76
김명식	경제82
김민	환경82
김민용	화공90
김범수	경제01
김병기	기계85
김병섭	기계76
김병주	의학91
김봉렬	공경79
김봉준	경영98
김상권	산공80
김상동	기계80
김상선	기계80
김성훈	경영78
김선구	화공90
김선기	전자79
김선태	기계78
김שמ안	ITSC대학원06
김성우	화공79
김성준	경영90
김성철	기계85
김성희	기계77
김세득	영문79
김세영	산공79
김세철	전기78
김소현	미디어00
김승임	화공75
김수근	영문79
김수기	기계78
김수영	교육대학원03
김수철	화공73
김수현	환경95
김순미	인문10
김승규	영문90
김승희	화공98
김시범	전자79
김시원	경영대학원07
김양현	전자80
김연석	기계81
김연수	전자80
김영국	기계80

기부자명	관계/소속
김영무	산공90
김영주	기계79
김영중	산공79
김영중	전자80
김영환	산공79
김용경	전자91
김용구	공경80
김용국	산정03
김용기	공경80
김용운	전자80
김용태	심리90
김우원	경제89
김육중	기계79
김원식	미디어03
김유복	기계80
김익신	전자90
김윤정	기계78
김윤태	기계83
김익환	화공79
김재정	기계79
김재호	공경78
김정권	경영80
김정호	환경84
김재경	화공77
김종길	기계79
김종남	화공79
김종범	경영80
김종신	화공81
김중수	경영91
김중오	전자81
김중완	기계80
김중준	전자79
김중철	영문80
김주봉	산공78
김주석	수학87
김주태	불문80
김주환	기계78
김준용	사학99
김준우	산공85
김지관	산공79
김지호	전자78
김지흥	기계78
김진명	전자82
김진수	전산82
김진안	행정85
김진우	전기77
김진화	전자01
김진호	경영83
김창균	전자80
김창욱	경영78
김창조	경영84
김창진	화공85

기부자명	관계/소속
김창희	전자79
김철수	영문80
김철호	경영81
김충중	기계80
김태경	화공79
김태영	기계81
김태욱	전자80
김태훈	환경88
김학구	화공79
김학철	화학96
김한복	기계76
김현규	기계79
김현	영문97
김현섭	경영91
김현진	화공80
김형근	경영78
김형식	식품73
김형우	전기94
김형준	환경84
김홍보	산업대학원11
김홍석	경영78
김환욱	경영96
니중호	경영87
니창운	화공80
나태영	전자97
남궁규태	기계79
남승우	경영96
노시평	화공79
노천규	화공80
류상현	기계80
류종구	행정94
류홍천	전자79
문경식	화공80
문관수	전자79
문양현	전자79
문연숙	불문79
문영준	산공81
문영춘	전자87
문유건	산공82
문재호	기계76
민병갑	기계80
민병윤	경영80
민정기	경제84
민준영	공경78
박강서	전자79
박건우	화공80
박건용	전자85
박경업	산공87
박경준	기계80
박광준	기계76
박광호	전자80
박근우	생물공학84

기부자명	관계/소속
박기원	경제85
박낙원	산업대학원06
박대원	기계76
박동애	불어80
박동애	불문80
박동진	공경79
박명상	경영90
박문산	전자97
박문순	경영86
박문찬	경영95
박미희	경영80
박병우	영문79
박병윤	토목88
박병창	화공82
박상오	기계79
박상욱	화공88
박상준	기계78
박상환	기계80
박세규	산공79
박소연	경영00
박수진	화공80
박수진	전자80
박순식	산공87
박순옥	경영93
박안홍	기계79
박영동	화공79
박영복	전자79
박영석	화공80
박영애	산업대학원11
박용환	경영83
박우경	불문80
박원희	기계83
박재길	기계74
박재홍	교육대학원01
박정훈	전자79
박중기	화공80
박중석	산공87
박중용	산공78
박중원	경영87
박중윤	전자80
박주원	화공80
박지원	기계80
박진호	전자83
박찬용	전자76
박찬호	경영79
박창동	화공77
박철	산공80
박총림	불문80
박태동	기계79
박혁	전자85
박홍웅	전자79
박환창	불문84

기부자명	관계/소속
박희진	화공79
박희태	공경73
반영무	기계77
반철희	경제84
방경원	전자80
방병천	전자80
배성준	전자80
배익호	전자03
배학원	기계80
백차현	전자99
변경수	화공78
변기용	공경75
변태환	불문80
부춘심	화공82
서기준	경영87
서명원	화학03
서미화	산업대학원11
서보건	경영97
서봉현	기계79
서성택	기계80
서수한	경영97
서영덕	생명98
서정현	기계80
서화희	기계87
석광열	영문80
선호득	기계78
손두현	산공79
손석상	산공80
손순환	화공80
손지영	경영01
손태원	경영83
송경수	경영85
송근섭	경영80
송기상	전자79
송기찬	전자82
송병섭	기계76
송성용	전자80
송원준	불문80
송재규	산공85
송정수	건축99
신경우	경영78
신동주	경제95
신두철	불문79
신병우	공경79
신상운	화공78
신의수	경제82
신재운	산업대학원11
신정섭	기계80
신정진	기계85
신종대	환경86
신준하	화학88
신준호	경영83

기부자명	관계/소속
신지윤	산업대학원11
신철호	법학88
신춘섭	화공73
신태창	화공79
신학순	산공79
신현주	환경99
신호연	전자80
심우용	경영84
심우성	경영84
심안석	화공77
심정철	전자84
안두원	기계78
안병식	기계74
안병철	전자88
안병철	경영81
안여환	산공79
안재식	재료94
안재영	산공80
안창준	기계80
안철순	공경77
안치규	산공80
안태훈	전자80
안호영	경영84
양광하	기계76
양문모	전산85
양미령	생명07
양병용	기계80
양성식	기계79
양승철	기계79
양영재	경영93
양인식	전자78
양장현	기계11
양호진	산공81
양희창	경영84
어승규	기계79
엄경미	영문84
엄인희	경제92
엄재득	산공79
엄정완	기계79
엄태문	기계78
염우영	국문95
오귀석	전자78
오상경	기계73
오성원	경영95
오영근	기계79
오영택	경영대학원05
오재영	기계81
오주영	화공90
오준서	건축11
오창준	불문80
오택원	화공79
오희준	화공04

기부자명	관계/소속
우병주	기계82
우상혁	기계88
우원균	전기79
우용재	경영대학원07
우창완	기계79
원장남	전자83
원주경	환경86
원치호	전자05
유광열	전자73
유명호	경영80
유병대	전자75
유상근	환경90
유상원	국문92
유성렬	산정10
유용수	경영84
유용식	전자80
유인삼	전자80
유충삼	기계76
유태근	화공80
유한석	기계78
유현준	산공75
윤기원	화학78
윤재승	제어계측90
윤진	불문79
윤준기	기계84
윤환	국문83
이강기	경영83
이강현	전자75
이건화	산공79
이경재	기계74
이경중	화공80
이경현	기계79
이계주	공경80
이광노	생물공학85
이광호	공경78
이규철	전자73
이근석	기계80
이금숙	불문79
이기근	경영88
이기욱	재료84
이기중	ITSD대학원11
이동기	전자80
이동원	재료84
이두영	공경78
이만성	기계78
이만호	경영78
이명운	기계75
이명호	공경80
이명희	교육대학원02
이문하	환경86
이미경	교육대학원06
이미자	교육대학원03

기부자명	관계/소속
이민경	경영01
이병규	전자73
이병기	경영81
이병선	경영79
이병엽	경영85
이병호	전자80
이상성	경영89
이상엽	환경05
이상원	전자80
이석현	경영대학원03
이성식	전자77
이성식	국문83
이성식	기계74
이성영	공경77
이승호	경제84
이은태	화공73
이승근	기계80
이승현	전자82
이연강	전자79
이연희	불문79
이영범	경영86
이영석	산공79
이영일	경영80
이영호	전자80
이광형	경영85
이용로	기계79
이용복	기계77
이용욱	경영81
이용운	화공80
이용훈	화공75
이우안	경영81
이윤갑	화공79
이윤호	화공89
이용교	공경78
이은규	경영대학원03
이은성	불문79
이웅정	경영87
이영표	불문79
이인호	전자79
이재성	화공79
이재진	기계79
이재평	재료84
이정삼	전자78
이정이	영문00
이정인	행정93
이정재	건축96
이정준	ITSD대학원04
이정호	전자73
이정훈	전자78
이중연	경영82
이중원	전자79
이준영	환경05

기부자명	관계/소속
이준은	화공80
이준호	법학93
이지상	미디어01
이지원	경영11
이진선	경영대학원07
이창수	공경73
이창우	전산82
이창훈	건축87
이충식	기계77
이태영	전자99
이태희	의학94
이한구	기계85
이한규	기계80
이한석	경영86
이항희	영문96
이현명	화공77
이현상	화학76
이형무	기계77
이호근	전자79
이화수	신소재06
이희영	경영대학원04
인정숙	전자85
임영훈	경영94
임민호	경제77
임병업	경제81
임생기	기계79
임성욱	기계89
임영준	공경74
임인재	화공83
임재성	전자79
임정혁	영문80
임종석	화공79
임종섭	영문79
임종환	전자80
임진규	산공79
임채중	기계93
임춘성	기계79
임태규	공경80
임평욱	화학80
장기순	기계74
장병일	화공79
장상만	전자80
장신규	화공79
장용석	화공85
장용호	산공80
장준서	전자79
장지수	인문10
장직순	환경81
장호수	기계06
전성일	화공84
전성환	전자80
전원호	기계95

기부자명	관계/소속
전재현	화공79
장규범	전자80
장규하	건설시스템02
정기정	화공73
정기훈	교육대학원01
정미숙	국문86
정민호	화공82
정방근	전자79
정성환	산공79
정승화	경영78
정연광	전자79
정왕진	영문79
정운규	기계80
정일규	공경77
정준모	생물공학90
정장경	영문79
정해만	기계79
정해준	화공79
정현용	경제97
정해원	경영80
정희고	화학78
조결훈	기계79
조경태	경영84
조규태	경영86
조기홍	경영대학원05
조길원	화공79
조동식	경영84
조두현	전자80
조문준	행정86
조성만	산업대학원03
조성태	영문80
조연재	전자79
조완익	경영85
조윤진	영문80
조익수	기계79
조중순	기계80
조해성	화공78
조형규	공경75
주동준	영문80
주창원	기계76
주필상	전자79
지승규	산공79
지승렬	영문79
지영교	기계80
지훈수	산업대학원09
진동환	기계85
진명호	전자77
차삼훈	산업대학원07
차영선	불문81
차원운	화공80
채교식	기계84
채삼욱	건축97

기부자명	관계/소속
채일	불문80
최근배	화공73
최기혁	기계80
최문규	전자75
최문호	경영80
최병국	전자공학
최병일	화공80
최병학	공경77
최성혜	대학원심리96
최승순	불문84
최신영	산업정보시스템 98
최영두	재료90
최영탁	재료92
최영수	공경78
최용호	경영80
최재승	경제85
최재은	자유11
최재혁	경영대학원05
최중욱	공경78
최희원	경제84
최희주	불문80
추동욱	산업대학원10
추병윤	전자80
한관희	공경78
한봉훈	산공86
한상준	기계77
한석근	기계85
한운희	기계79
한중권	경영80
한진희	화공84
한태규	전자79
한효식	화공82
합건주	산공94
합경숙	생물86
합동일	산업대학원11
허기영	산업대학원06
허려화	대학원에너지04
허석수	재료84
허성철	수학93
현영주	공공정책대학원 10
홍기택	화공78
홍대의	경영79
홍덕표	화공77
홍민철	전자80
홍범준	경영96
홍서표	기계78
홍세경	전자78
홍순갑	기계78
홍영수	건축95
황교민	화공80

1-1-1 캠페인 기부내역 2011년 2~7월

기부자명	관계/소속	기부자명	관계/소속	기부자명	관계/소속	기부자명	관계/소속	기부자명	관계/소속	기부자명	관계/소속
황덕모	경영79	강신희	학부모	김선주	학부모	류지현	학부모	신해근	학부모	유정현	학부모
황동선	회공79	강정희	학부모	김신향	학부모	문운현	학부모	실광수	학부모	유혜숙	학부모
황두성	전자89	강중수	학부모	김성계	학부모	박계신	학부모	성금숙	학부모	윤민경	학부모
황민숙	불문79	강철	학부모	김성숙	학부모	박기표	학부모	성기옥	학부모	윤상혁	학부모
황민하	경영82	강호식	학부모	김성호	학부모	박대성	학부모	성대중	학부모	윤성택	학부모
황병철	전자78	고은경	학부모	김순복	학부모	박민진	학부모	성정수	학부모	윤성희	학부모
황우식	재료93	공광호	학부모	김시태	학부모	박미도	학부모	성태문	학부모	윤임중	학부모
황원복	경영90	곽현철	학부모	김신옥	학부모	박미란	학부모	소귀섭	학부모	윤주용	학부모
황인규	기계10	구미희	학부모	김신옥	학부모	박미순	학부모	손문성	학부모	윤진섭	학부모
황인국	산공79	구수영	학부모	김연숙	학부모	박심순	학부모	손보익	학부모	이경숙	학부모
황충국	경영78	구지홍	학부모	김영관	학부모	박상기	학부모	손인현	학부모	이광희	학부모
(주)경봉	대표: 양남문 (TS대학원)	구형자	학부모	김영석	학부모	박상희	학부모	손재영	학부모	이규환	학부모
(주)굿	대표: 이영규 네트웍스 (산업대학원11)	권경삼	학부모	김요남	학부모	박석희	학부모	송명중	학부모	이기복	학부모
(주)대영	대표:박인천 엠펙 (산업대학원09)	권상희	학부모	김종우	학부모	박성욱	학부모	송미영	학부모	이기섭	학부모
(주)성호	대표: 김기권 스텐 (경영대학원01)	권성환	학부모	김은실	학부모	박수영	학부모	송순희	학부모	이기원	학부모
(주)아이케이	대표:안경렬 코퍼레이션 (기계78)	권순자	학부모	김인숙	학부모	박승우	학부모	송정미	학부모	이동규	학부모
(주)에이	대표:강방권 피피 (화학90)	권영자	학부모	김재화	학부모	박연옥	학부모	송정석	학부모	이동성	학부모
(주)이포넷	대표:이득경 전자82)	권오웅	학부모	김점순	학부모	박연주	학부모	송택환	학부모	이동열	학부모
(주)제이티	대표:박중서 (TS대학원)	권혁경	학부모	김정구	학부모	박영두	학부모	신동수	학부모	이명주	학부모
(주)홍익	대표:성낙전 기술단 (TS대학원5기)	김정욱	학부모	김정묵	학부모	박영민	학부모	신현기	학부모	이미자	학부모
동원하이텍	대표:권선용 (TS대학원)	김경석	학부모	김정수	학부모	박영식	학부모	심은주	학부모	이병훈	학부모
미래공조(주)	대표:어경태 (경영86)	김경선	학부모	김정자	학부모	박은영	학부모	안병립	학부모	이봉석	학부모
보광토탈	대표:백재민 이엔지(주) (TS대학원10)	김경원	학부모	김종국	학부모	박은옥	학부모	안봉재	학부모	이상근	학부모
엔에프씨	대표:류우영 (NFC) (화학89)	김경주	학부모	김종산	학부모	박인숙	학부모	안원규	학부모	이상규	학부모
우진블트	대표:정선호 공협(주) (산업대학원05)	김경희	학부모	김종숙	학부모	박정숙	학부모	안은옥	학부모	이상원	학부모
유티정보(주)	대표:이대원 (산공85)	김광숙	학부모	김종운	학부모	박종규	학부모	안익훈	학부모	이상원	학부모
킴스엔지니어	대표:김승열 어링(주) (산업대학원03)	김광애	학부모	김주옥	학부모	박주현	학부모	안인모	학부모	이석우	학부모
		김광자	학부모	김준수	학부모	박중수	학부모	안태수	학부모	이성우	학부모
		김규원	학부모	김준성	학부모	박하나	학부모	양기천	학부모	이성현	학부모
		김규진	학부모	김중형	학부모	박현주	학부모	양승수	학부모	이수용	학부모
		김규태	학부모	김진언	학부모	박환수	학부모	양원석	학부모	이수정	학부모
		김근인	학부모	김태열	학부모	반광식	학부모	양윤정	학부모	이순용	학부모
		김기호	학부모	김태현	학부모	방성주	학부모	양정안	학부모	이순택	학부모
		김남영	학부모	김한균	학부모	방성주	학부모	양정옥	학부모	이순희	학부모
		김덕순	학부모	김현숙	학부모	방현천	학부모	양광섭	학부모	이승미	학부모
		김동기	학부모	김형미	학부모	방혜숙	학부모	여철현	학부모	이식용	학부모
		김동식	학부모	김형선	학부모	배미애	학부모	염병국	학부모	이신규	학부모
		김명임	학부모	김혜준	학부모	배상숙	학부모	오기영	학부모	이애자	학부모
		김명화	학부모	김혜영	학부모	배연옥	학부모	오용인	학부모	이양임	학부모
		김미자	학부모	김호겸	학부모	배정애	학부모	오정애	학부모	이영규	학부모
		김민영	학부모	김홍석	학부모	백남석	학부모	오창석	학부모	이영미	학부모
		김민화	학부모	김호기	학부모	백남태	학부모	오형택	학부모	이영학	학부모
		김병진	학부모	김홍용	학부모	백서민	학부모	오호영	학부모	이영희	학부모
		김봉식	학부모	김희숙	학부모	백용호	학부모	왕영숙	학부모	이윤공	학부모
		김삼덕	학부모	나혜란	학부모	변희진	학부모	우은경	학부모	이용심	학부모
		김성호	학부모	남영우	학부모	봉금희	학부모	원평희	학부모	이용욱	학부모
		김석중	학부모	남현모	학부모	서미애	학부모	위홍환	학부모	이우경	학부모
		김선관	학부모	노농길	학부모	서순화	학부모	유강하	학부모	이우영	학부모
		김선미	학부모	노지연	학부모	서용재	학부모	유권중	학부모	이은숙	학부모
		김선옥	학부모	도성재	학부모	서유내	학부모	유상열	학부모	이은영	학부모
		김선자	학부모	류윤희	학부모	석의근	학부모	유욱순	학부모	이은주	학부모

학부모

기부자명	관계/소속
김미경	학부모
강병희	학부모
강복선	학부모
강성오	학부모
강순덕	학부모

기부자명	관계/소속
이의섭	학부모
이인경	학부모
이인규	학부모
이재려	학부모
이재양	학부모
이재웅	학부모
이진희	학부모
이정란	학부모
이정수	학부모
이정순	학부모
이정옥	학부모
이정탁	학부모
이정환	학부모
이중서	학부모
이지영	학부모
이지숙	학부모
이진우	학부모
이진희	학부모
이철규	학부모
이태원	학부모
이한록	학부모
이현옥	학부모
이현택	학부모
이희숙	학부모
임미경	학부모
임봉길	학부모
임서영	학부모
임선태	학부모
임인숙	학부모
임정숙	학부모
장경진	학부모
장공진	학부모
장광열	학부모
장균	학부모
장남진	학부모
장선의	학부모
장소영	학부모
장윤정	학부모
장진규	학부모
전도수	학부모
전상수	학부모
전우석	학부모
전지민	학부모
전현숙	학부모
정경희	학부모
정구영	학부모
정구창	학부모
정명신	학부모
정문기	학부모
정복길	학부모
정연수	학부모
정유진	학부모

기부자명	관계/소속
정의돌	학부모
정인선	학부모
정재기	학부모
정진경	학부모
조규열	학부모
조규영	학부모
조성균	학부모
조윤래	학부모
조중용	학부모
조한식	학부모
조현옥	학부모
주기영	학부모
주영천	학부모
지춘희	학부모
진광선	학부모
진도범	학부모
차덕환	학부모
차영주	학부모
채경우	학부모
채명국	학부모
채영선	학부모
채영호	학부모
천명길	학부모
천승락	학부모
최경아	학부모
최금옥	학부모
최만중	학부모
최명규	학부모
최목식	학부모
최미영	학부모
최상범	학부모
최수도	학부모
최순식	학부모
최영길	학부모
최영태	학부모
최유담	학부모
최윤영	학부모
최윤희	학부모
최인자	학부모
최일근	학부모
최재은	학부모
최정원	학부모
최종우	학부모
최현만	학부모
최현아	학부모
탁덕관	학부모
탁경달	학부모
한미정	학부모
한정숙	학부모
한진희	학부모
한충부	학부모
허인영	학부모

기부자명	관계/소속
허정미	학부모
허호우	학부모
홍영숙	학부모
홍정향	학부모
홍진선	학부모
황교숙	학부모
황명수	학부모

교직원

기부자명	관계/소속
고근하	교수
고병수	교직원
고순재	前교직원
구자영	교직원
권순정	교수
권용금	교직원
권중희	교직원
김경래	교수
김경숙	교직원
김근태	교직원
김기문	교직원
김도영	교수
김문석	교수
김상열	교수
김수용	교수
김승권	교직원
김승주	교수
김시천	교직원
김영기	교직원
김영숙	교직원
김영주	교직원
김용순	교수
김유권	교수
김윤기	교직원
김은희	교직원
김인에	교직원
김인에	직원
김재은	교직원
김중현	교직원
김지혜	교직원
김춘자	교수
김형수	교수
김형태	교수
김혜선	교수
김호섭	교수
김홍식	교수
김홍수	교수
나기석	교직원
나명순	교직원
노동현	교직원
노민수	교수

기부자명	관계/소속
문병철	교직원
문은표	교수
문창규	교수
민병현	교수
민철기	교수
박기현	교수
박민규	교수
박민경	교직원
박범	교수
박봉기	교직원
박영동	교수
박일분	교직원
박정웅	교직원
박철균	교직원
방승진	교수
배영환	교직원
백윤기	교수
범진환	교수
서경원	교수
서문호	교수
서원희	교수
소의영	교수
소진식	교직원
손정훈	교수
손태식	교수
송미숙	교수
송석래	교직원
송용진	교수
송은주	교직원
송홍배	교직원
신경철	교직원
신정수	교직원
신정철	교직원
신준한	교수
신형섭	교직원
신호준	교수
안선미	교직원
안순일	前교직원
안영찬	교직원
안영환	교수
안재환	총장
안한남	교직원
양광모	교직원
양성모	교직원
염동일	교수
오상탁	교직원
유경호	교직원
유동문	교직원
유문숙	교수
유미애	교수
유시대	교직원
유재석	교수

기부자명	관계/소속
유희석	교수
육현민	교직원
윤승규	교직원
윤원식	교수
윤혜정	교직원
이강준	교직원
이경중	교수
이도섭	교직원
이동철	교직원
이병근	교직원
이상민	교수
이석원	교직원
이선형	교직원
이성아	교직원
이수영	교직원
이숙향	교수
이영철	교직원
이영현	교직원
이은경	교직원
이인풍	교직원
이준섭	교수
이지연	교수
이지현	교직원
이지현	교직원
이현규	교직원
이형천	교수
이혜경	교수
임기영	교수
임석철	교수
임재익	교수
장세덕	교직원
정영수	교직원
장혜영	교수
전영목	교수
정경훈	교수
정연훈	교수
정옥희	교직원
정윤석	교수
정아수	교수
정정문	교직원
정해근	교직원
정홍락	교직원
조경숙	교직원
조영호	교수
조환	교직원
진성호	교직원
천순자	교직원
최선정	교직원
최수영	교수
최영호	교직원
최정영	교직원
최진규	교직원

기부자명	관계/소속
최창기	교직원
최춘석	교직원
하영화	교수
함형미	교직원
함효준	교수
허택만	교직원
현영선	교수

일반

기부자명	관계/소속
김재순	일반
안기환	일반
오성호	일반
최병용	일반

후원의 집 캠페인

기부자명	관계/소속
가치있는	방상숙
밥상	
돈황갈비	구복희
두리마을	최경이
드림디포	김상현
수원본점	
디딤돌공인	윤재춘
중개사	
무교동	안병록
유정낙지	
보물촌꺼미	안정숙
돼지	
수누리	서주희
명동갈국수	신재숙
샤브샤브	
아주대	오상기
보쌈집	
아주스크린	김원호
골프존	
유니온	남하현
플리워	
제일세계	송기수
백반	
춘하추동	강민영
콩나물	오연숙
떡볶이	
태화장	박경숙
허수아비	정재호
현경	허용
JBAR	김준식